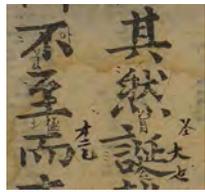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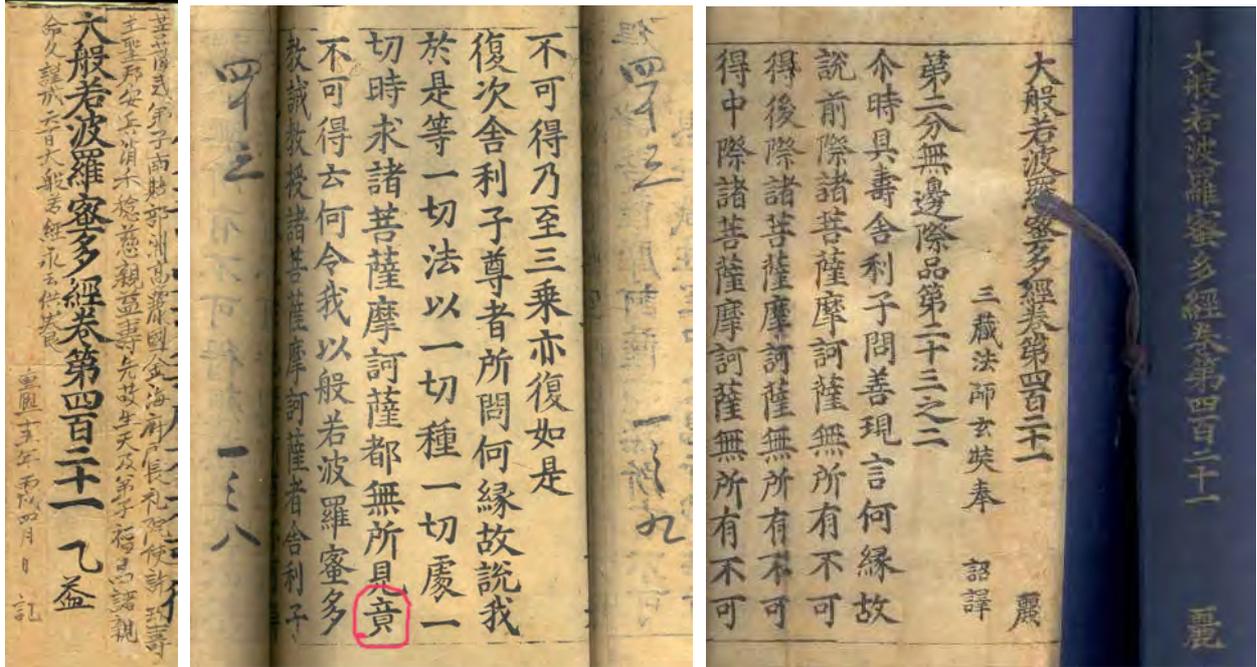

불교전적(佛敎典籍)



1 대반야바라밀다경
大般若波羅蜜多經

높이 26.8cm, 너비 1127.5cm(全長), 發行者不明 1046年(靖宗 12)



고려 현종(1009~1031) 이래 부처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조성한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인출본 중 하나이다. 당나라 현장(玄奘)이 번역한 『대반야바라밀다경』 600권 중 권제 421에 해당한다. 『대반야바라밀다경』이 초조대장경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고, 1011년(현종 2) 경 조조(雕造)가 시작되었으므로, 본 판본의 조조 시기는 현종 연간 초기로 추정된다. 말미의 묵서 발문에 의하면 중희(重熙) 15년(1046년) 4월 김해부(金海府)의 호장(戶長) 허진수(許珍壽)에 의해 공양된 [600부 대반야경] 중 하나로, 1046년 이전에 인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유가사지론

瑜伽師地論 (보물 제1658호)

높이 39.3cm, 너비 1186cm(全長), 大藏都監 1247年(高宗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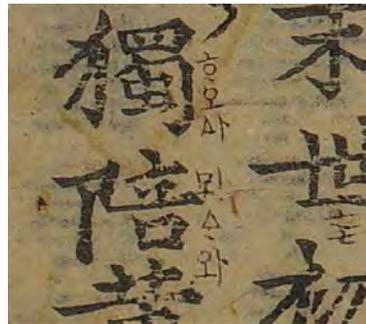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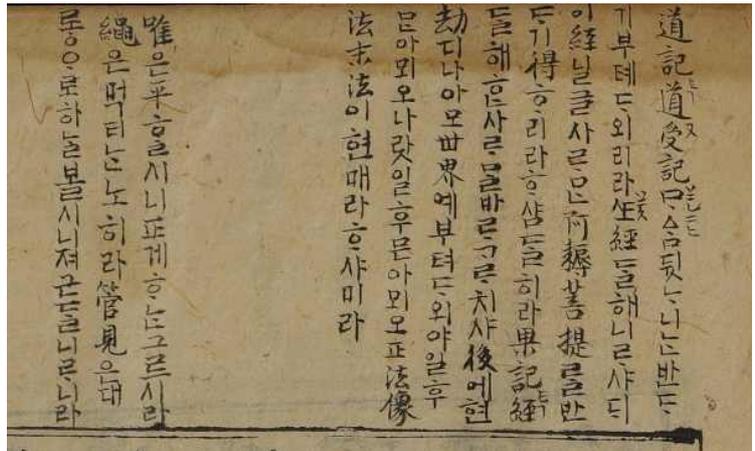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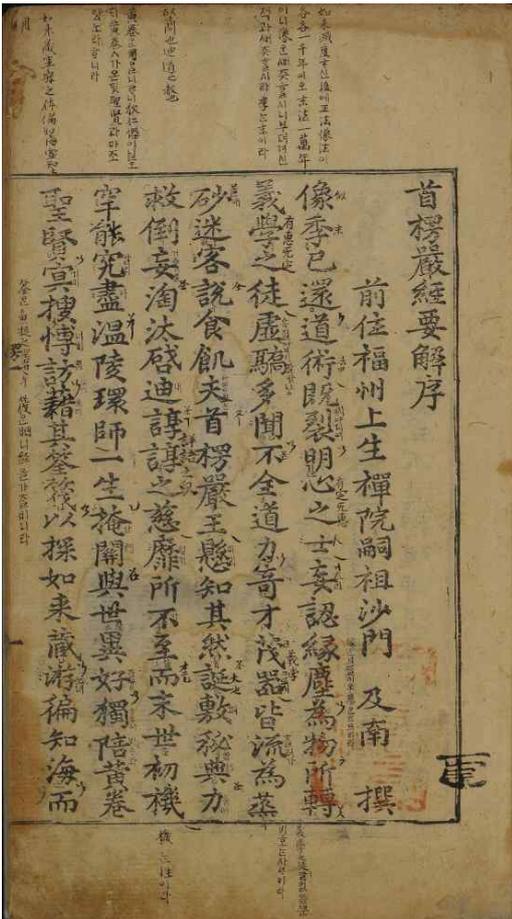
『유가사지론』은 불교 유가행파(瑜伽行派)의 기본 논저(論著)로, 인도의 미륵보살이 지은 책을 당나라 현장(玄奘)이 100권으로 번역한 것이다.

1247년(고려 고종 34)에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재조본 고려대장경 판본 중 하나로 전체 100권 중 권42에 해당한다. 권말(卷末)에 '丁未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간기(刊記)가 있다. 인쇄가 선명하고 정교한 점으로 보아 13~14세기에 인쇄(印出)된 것으로 여겨진다.

3 수능엄경요해

首楞嚴經要解 (보물 제2056호)

높이 38.3cm, 너비 22.5cm, 發行者不明 1401年(太宗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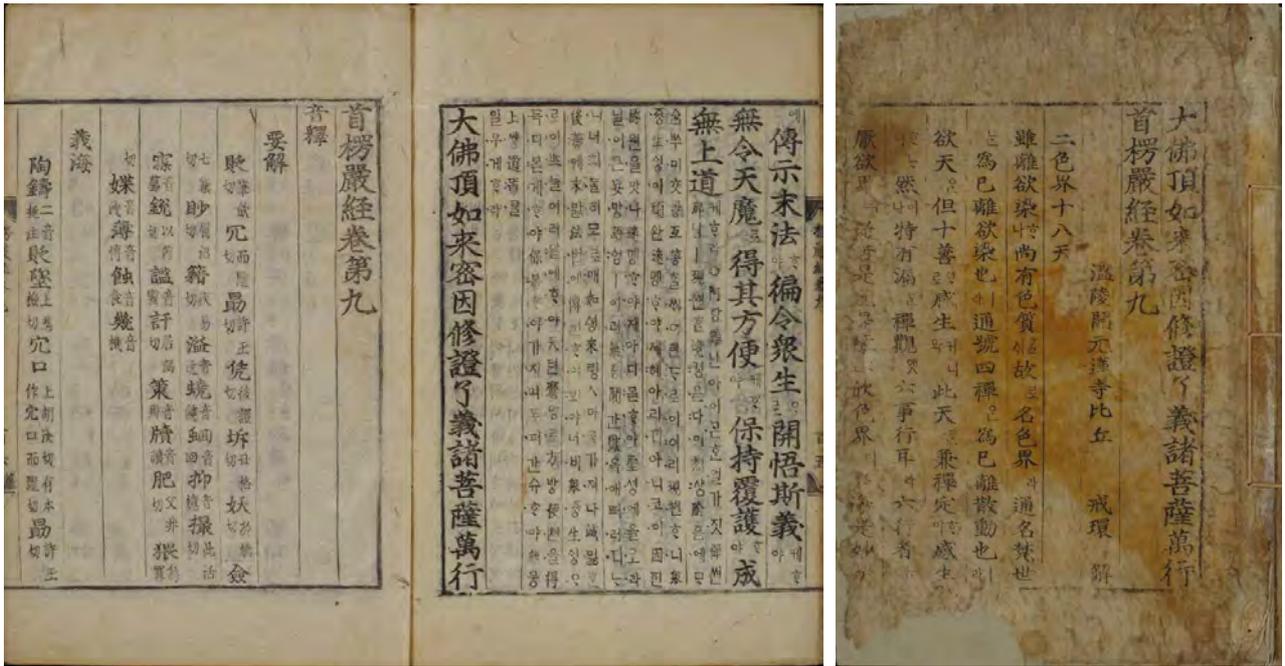
당나라 반자밀제(般刺密帝)가 번역하고 송나라 급남(及南)이 찬하였으며, 송나라 계환(戒環)이 해석한 것을 1401년(建文 3) 태상왕으로 있던 태조가 신총(信聰)에게 대자(大字)로 판하본(板下本)을 쓰게 하여 간행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보물 제759호)에 많은 부분이 결락되어 있는데, 이 책에 이 부분이 온전히 남아 있어 권1~2를 보충할 수 있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본문 좌측에 一, 二 등 신라식 구결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며, 난상(欄上) 및 본문에 훈민정음 초기 서체로 △(반치음), ○(옛이음) 등이 기록되어 간경도감 언해본 이전 자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려에서 이어진 조선 초기 석독구결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 자료이다.

4 수능엄경(언해)

首楞嚴經(諺解) (보물 제1794호)

높이 37.3cm, 너비 24.6cm, 乙亥字, 校書館 1461年(世祖 7)



1461년 교서관(校書館)에서 한계희(韓繼禧)와 김수온(金守溫) 등이 번역하였으며, 주자소(鑄字所)에서 을해자(乙亥字)로 인출한 책이다. 을해자 대·중·소자와 소자 한글자가 사용되어 조선 초기 인쇄, 활자사 연구에 중요 자료가 된다. 또한 방점이 붙어 있어 한글 창제 당시 국어의 특징을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훈민정음 창제 후 최초의 한글번역본에 해당한다.

상당 부분 교정 흔적이 보이며,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목판본을 제작하기 위한 교정본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장 하단에는 <金麗山洗>라는 주서(朱書)가 쓰여 있다. 이는 교정자의 이름 <김여산>과 함께, 교정을 뜻하는 말인 세보(洗補)를 줄여 세(洗)라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김여산이 교정을 하였다”는 뜻으로, 그는 1452년(단종즉위년) 정음청(正音廳) 서원(書員)에 봉직한 인물이다. <정음청>에 봉직해 한글 활용에 익숙하였으므로, <능엄경언해>의 교정에 참여한 듯하다.

5 묘법연화경(언해)

妙法蓮華經(諺解) (보물 제1010-2호)

높이 31.1cm, 너비 22.7cm, 刊經都監 1463年(世祖 9) 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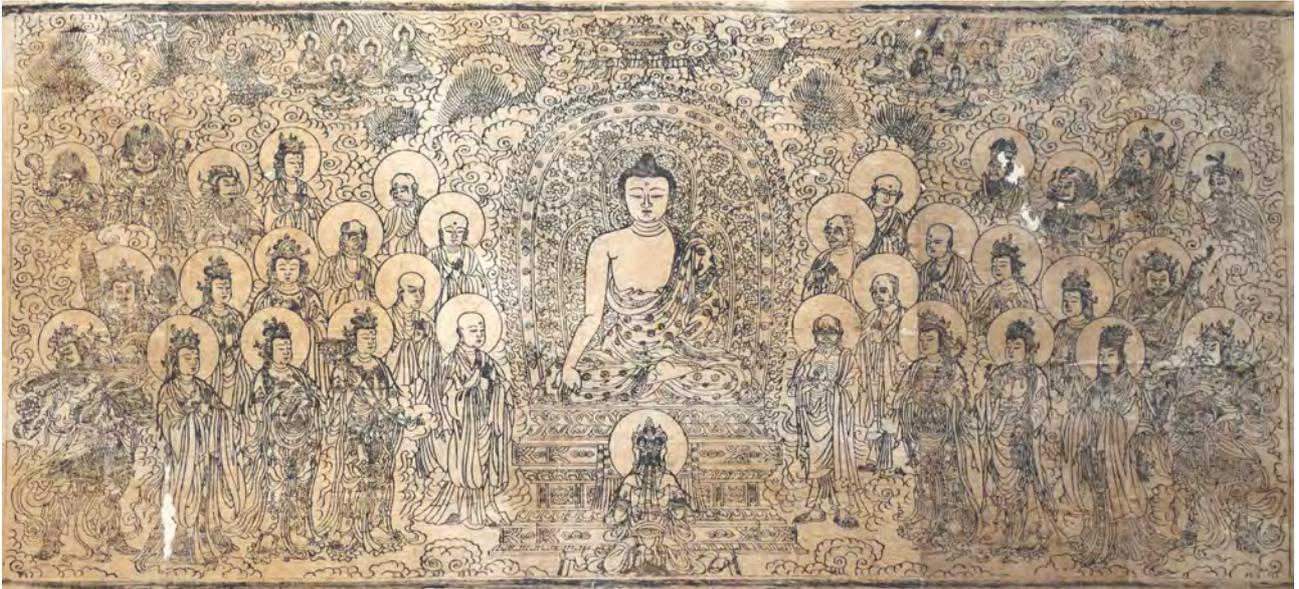


구마라집이 번역한 한역본에 계환(戒環)이 주해(註解)하고 일여(一如)가 집주(集註)한 책에 세조가 경문에 구결(口訣)을 달고 윤사로(尹師路) 등이 번역하여 1463년(세조 9) 간경도감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국역불경이다. 1463년에 간행된 간경도감본 중에서 유일하게 변상도가 있다. 권제1 앞부분에 「교정(校正)」 인(印)이 찍혀 있어 『법화경』의 본격적 간행에 앞서 교정본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권수(卷首)의 변상도는 「영산설법도(靈山說法圖)」로, 1459년 광평대군부인 신씨 발원 『묘법연화경』 변상도(원각사 소장)에 수정을 가해 번각(飜刻)한 것이다.

간경도감 간행본의 변상도는 1459년 견성암에서 간행된 광평대군부인 신씨 발원의 『묘법연화경』 변상도에 수정을 가해 번각(飜刻)한 것이다.

* 광평대군부인 신씨 발원본 변상도, 원각사 소장 ▼



1459년 견성암에서 간행된 <광평대군부인 신씨 발원의 『묘법연화경』 변상도>와, <간경도감 간행본 변상도>는 이후 1470년 왕실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 대자본 변상도의 모본이 된다.

* 1470년 왕실 간행 『묘법연화경』 대자본 변상도, 원각사 소장 ▼



다라니(陀羅尼)

고양 원각사 고려시대다라니일괄(경기도유형문화재 제302호)



6 범서총지집(대비로자나성불경등 일대성교중 무상일승제경소설 일체비밀다라니)
 梵書總持集(大毘盧遮那成佛經等 一代聖教中 無上一乘諸經所說 一切秘密陀羅尼)

높이 9.7cm, 너비 28.8cm, 20枚, 廣濟鋪 1150年(毅宗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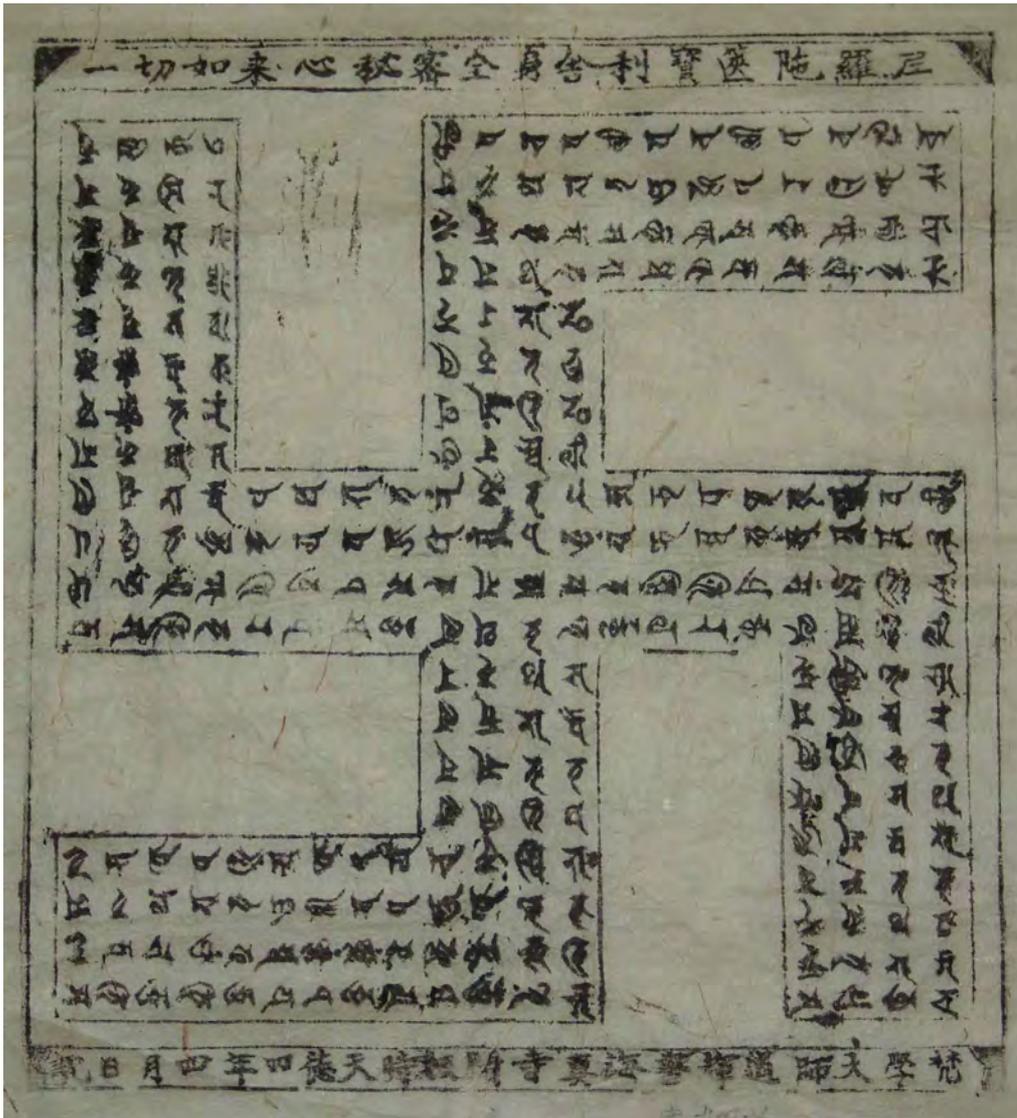
「범서총지집(梵書總持集)」이라 불리며, 1150년 6월 평양 광제포(廣濟鋪)에서 사원(思遠)이 중교(重校), 간행하였다. 안동 보광사 복장에서 동일 다라니가 발견된 바 있으며, 마지막 장에 “時庚午歲(1150) 戮月卜日 海東長安 廣濟鋪開板 印施 無窮 奉祝 聖壽萬年 兼 冀 法界有識含靈 共證 菩提者 禪師 思遠 重校”라는 간기가 있다.

이 자료는 전체 47장 중 3~22장의 산질본으로 간기가 누락되어 있지만, 초기 인쇄문화의 정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범서총지집」의 경우, ①1150년(庚午) 광제포(廣濟鋪) 개판본(안동 보광사 복장), ②1166년(丙戌), 협주사사(陝州事使) 이세협(李世陝) 간행본(해인사 비로자나불복장), ③1218년, 개태사 인혁대사(仁赫大師)본(민영규 소장) 등이 전한다.

7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

높이 28.5cm, 너비 27.6cm, 海晏寺 1152年(毅宗 6)



보협인다라니(寶篋印陀羅尼)류 중 범자로 된 가장 빠른 시기의 간행물이다. 다라니 하단에 “天德 4年(1152)”의 간기가 있으며, 상단부에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란 명칭과 함께, 하단에 “梵學大師 道輝書 海晏寺開板 時天德4年(1152) 4月 日 記”의 간기가 있다. ‘범학대사’란 표현은 당시 범학(梵學) 연구의 실체를 알려 주는 표현이다.

8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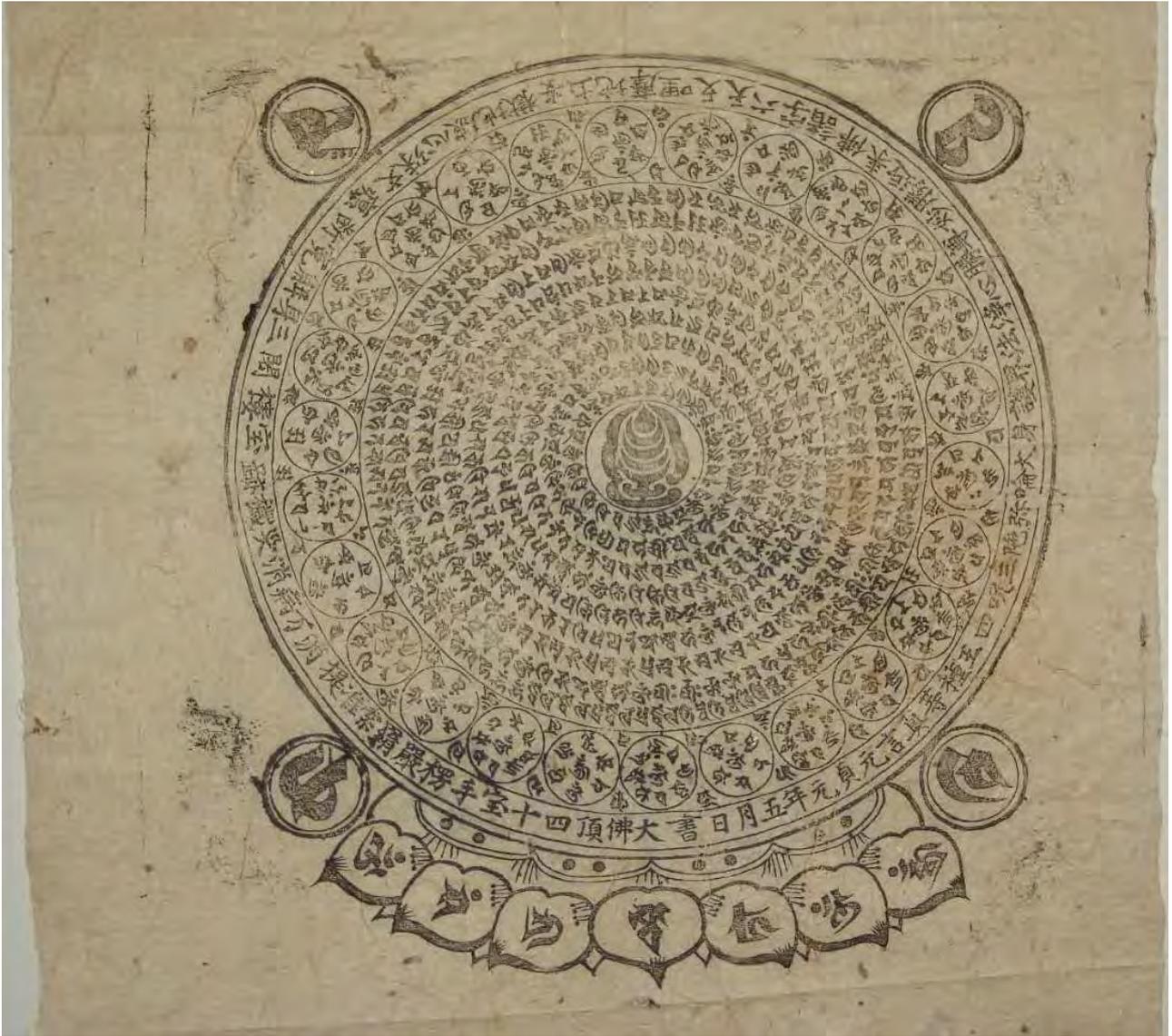
높이 34cm, 너비 36.5cm, 僧齋色 1292年(忠烈 18)



밀교의 만다라 도상과 함께 다라니를 표기한 자료로, 중앙에 「금강야차명왕만다라」가 그려져 있다. 만다라 도상 바깥에는 범자로 보협인다라니를 새겼다. 마지막 원권(圓圈)의 간기에 의하면, 1292년(至元 29) 찬성사 염강석(廉康碩) 등과 공물색원(供物色員) 이지(李芝) 등이 발원하여 승재색(僧齋色)에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만다라 도상을 싣고 있는 국내 최초의 자료로, 13세기 고려불교의 밀교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9 대불정진언등 진언합부다라니
大佛頂眞言等 眞言合部陀羅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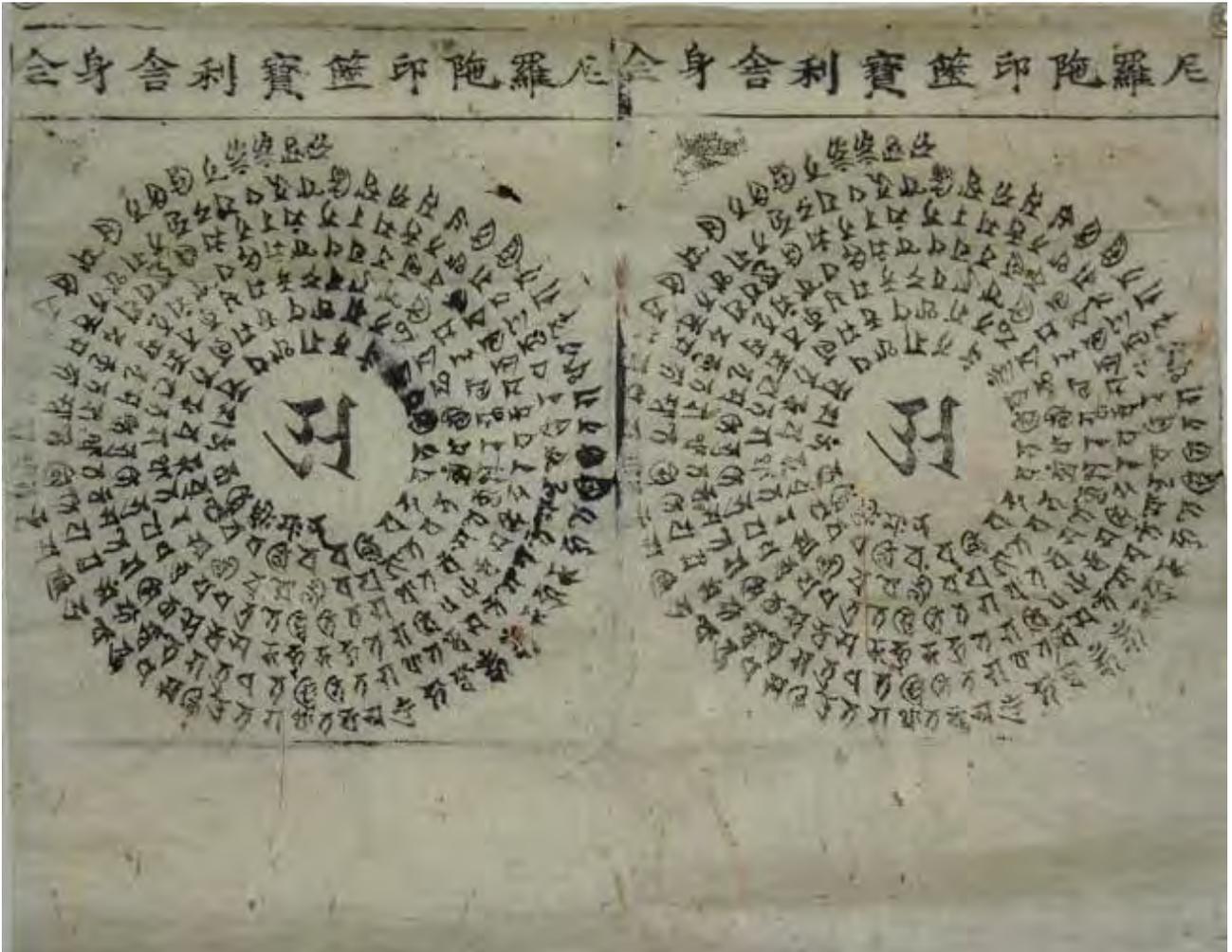
높이 40cm, 너비 37cm, 發行者不明 1295年(忠烈 21)



밀교 만다라 도상과 함께 다라니를 표기한 자료로,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에 해당한다. 대불정진언으로부터 사천왕진언에 이르기까지 26종의 진언이 실려 있다. 만다라는 중앙의 「대륜미타삼존주」를 중심으로 태장계만다라의 형식을 빌어 도상화하였다. 도상 바깥면에 '貞元 元年(1295)'이라는 간기가 있다.

10 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
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높이 32.2cm, 너비 33.2cm, 發行者不明 13世紀 後半



상단에 「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라는 명칭이 쓰여 있으며, 범자(梵字) 아(阿)자를 중심으로 안에서 밖으로 7겹의 원을 그리며 풀어 나오는 형태이다. 법신(法身)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실상을 이(理)의 측면에서 표현하였는데, 아자를 중심으로 범자가 밖으로 향하는 형태는 여래의 이타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태장계만다라 형식, 즉 대일태장계만다라여래가 대비심으로 중생의 보리심을 육성하여 증장케 하는 중생 섭화활동을 태아를 양육하는 모태에 비유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11 범자원상 금강계만다라
梵字圓相 金剛界曼荼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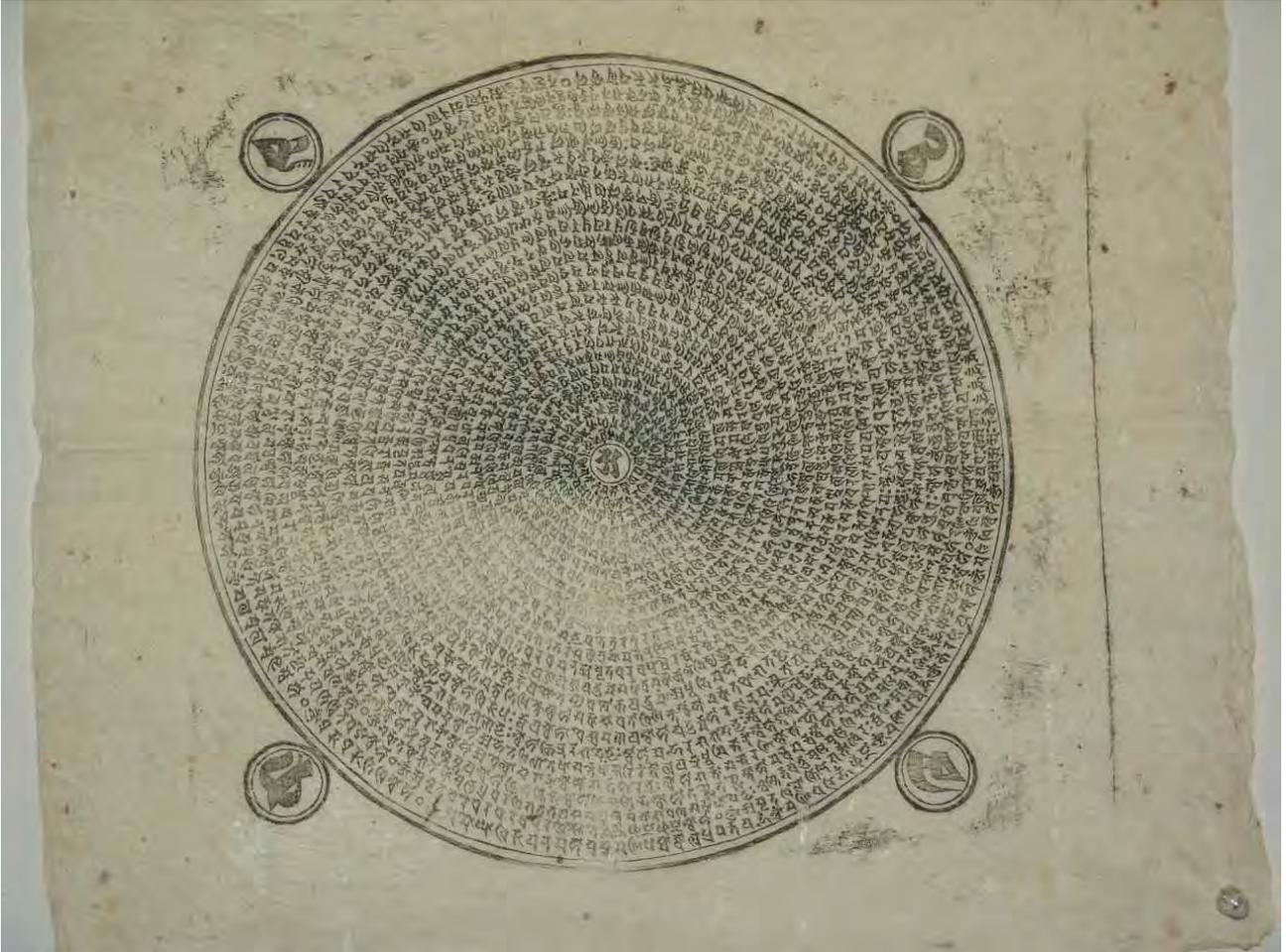
높이 38.2cm, 너비 40cm, 發行者不明 1301年(忠烈 27)



밀교 만다라 도상과 함께 다라니를 표기한 자료로, 태장계만다라에 해당한다. 중앙에는 대일여래와 함께 사방불을 안치하였고, 4보살을 두어 구회만다라(九會曼荼羅)를 표현하였다. 또한 바깥에는 천녀와 함께 다라니를 표기하였다. 만다라 도상 바깥 좌측에 “大德五年十一月日”이라는 간기와 우측에는 “山人小丘 刀”라 하여 각수명이 방제(旁題)란에 음각되어 있다. 밀교 만다라의 형식과 ‘소구(小丘)’라는 각수명을 알려 주는 자료이다. 복장 납입물로 추정되며, 여백에는 복장 당시의 시주명이 묵서로 쓰여 있다.

12 아자범자원상태장계만다라
阿字梵字圓相胎藏界曼荼羅

높이 41.2cm, 너비 37cm, 發行者不明 1301年(忠烈 27)頃



중앙에 '아(阿)'자를 두고 주위에 25개의 동심원 형태로 범자 진언을 좌에서 우로 나열하였다. 작은 원(○)을 기점으로 아(阿)자 중심으로 범자가 밖으로 향하는 도상은 이타(利他)를 나타내는 것으로, 태장계만다라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또한 '아'자를 중심으로 X자를 이루는 동심원 바깥에는 작은 원 안에 동북방 미륵보살, 동남방 보현보살, 서남방 문수보살, 서북방 관음보살 등 4대보살을 범자로 배치하였다.

이와 동일한 다라니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아미타불 복장(1301년)에서 수습되어 조성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13 아미타삼존다라니
阿彌陀三尊陀羅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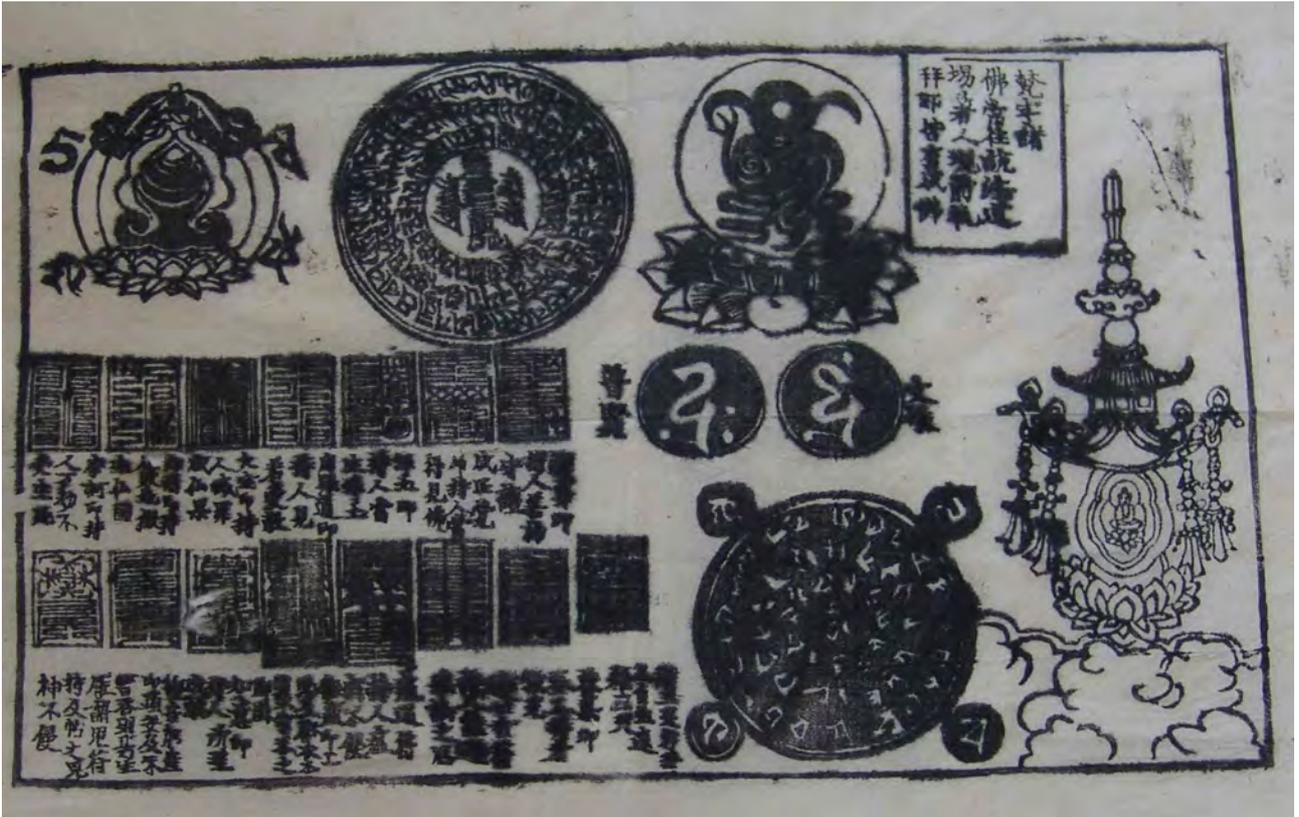
높이 35cm, 너비 36.5cm, 發行者不明 1301年(忠烈 27)頃



중앙에 「대불정심주(大佛頂心呪)」 도상을 안치하고 〈阿彌〉〈陀佛〉이라 존호를 표시하였다. 도상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써서 아미타삼존을 이룬 형태이다. 그 아래로는 실담문(悉曇文) 다라니를 좌대(座臺) 형태로 써둔 모습이다. 이와 동일한 다라니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아미타불 복장(1301년)에서 수습되어 조성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14 범자제불상주만다라
梵字諸佛常住曼荼羅

높이 21.3cm, 너비 37.6cm, 發行者不明 1447年(世宗 29)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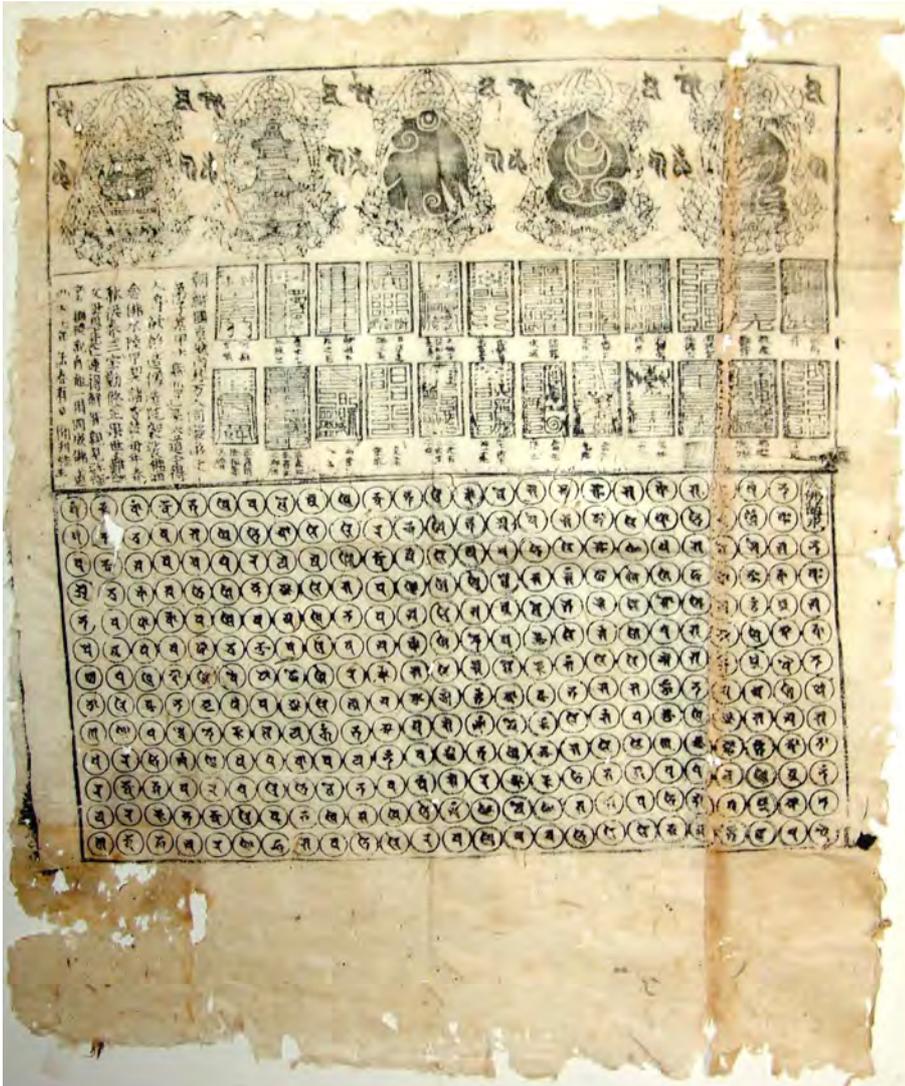
다라니 우측과 상단에는 [고려본 다라니]에서 볼 수 있는 금강계만다라 및 불인(佛印) 도상 6종이 실려 있으며, 우측 상단의 방제란(旁題欄)에 “梵字諸佛常住說法道場…”이라는 문구가 있다.

다라니 좌측 하단에는 15종의 부적 도상이 있다.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1447년) 복장본과 동일본으로, 불교 다라니와 민속의 부적 도상이 어우러져 판각된 초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5 성불수구만다라다라니
成佛隨求曼荼羅陀羅尼

높이 74cm, 너비 62cm, 發行者不明 1494年(成宗 25)



전지 크기의 1면에 인출한 것으로, 다라니 상단에는 5개의 불인(佛印) 도상이 있다. 아래로는 2행에 걸쳐 사각 궤 안에 당행견불(當行見佛), 당생정토(當生淨土) 등의 표기와 함께 24종의 부적 도상이 있다. 왼쪽에는 「조선국경성내외만인동발원문(朝鮮國京城內外萬人同發願文)」이라는 내용과 함께 '弘治 7年(1494)孟春有日開刊'이라는 간기가 실려 있다.

하단에는 「성불수구(成佛隨求)」라는 다라니 명칭에 이어 25행 13자의 형태로 각각 동그라미 안에 다라니 범자 한자씩을 새겼다.

위 1494년 다라니와 유사한 형태가 1586년 상원사 다라니 및 1738년 다라니에서 발견되어, 15세기 말부터 18세기에 걸쳐 널리 유행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16 수구일자공덕경신우집영주만다라
隨求一字功德經神又集靈呪曼荼羅

높이 24cm, 너비 56cm, 發行者不明 1579年(宣祖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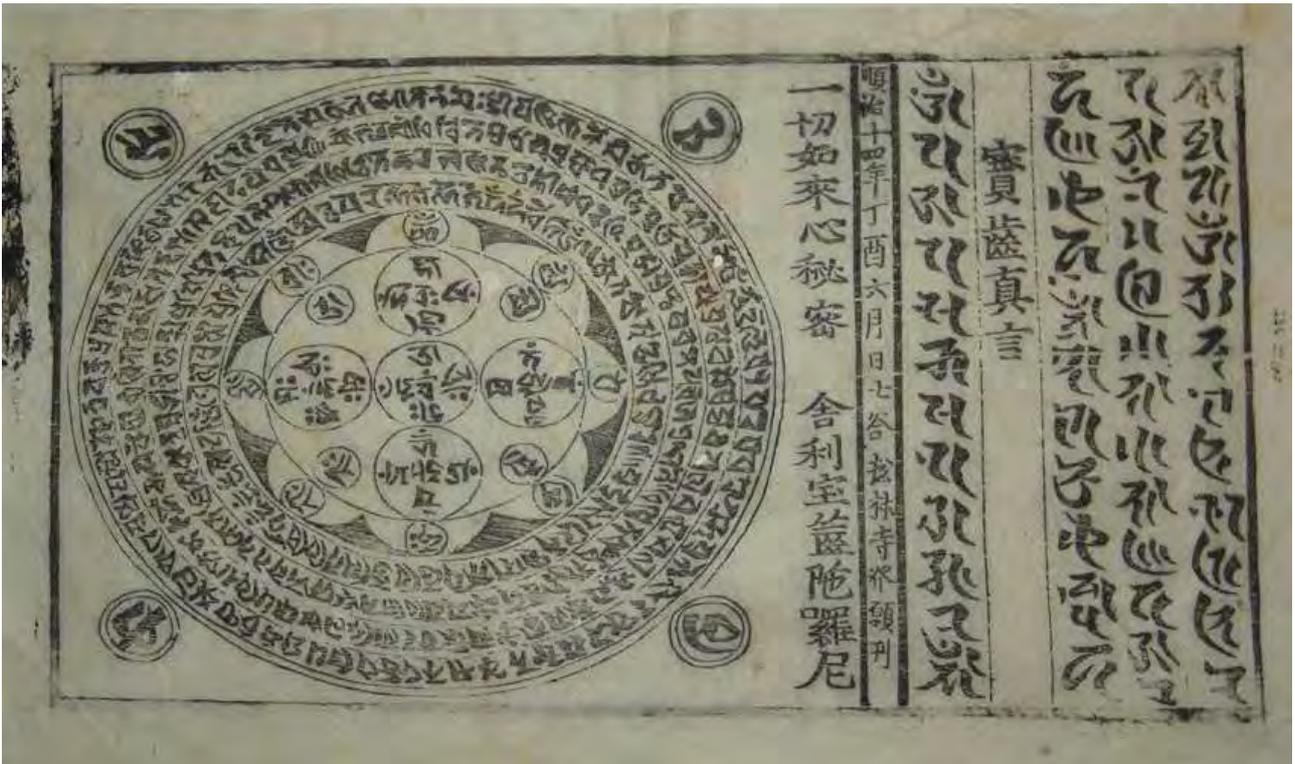


상원사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좌상 복장에서 발견된 1456년(景泰丙子) 신미(信眉)와 학열(學悅) 간행의 「수구일자공덕경신우집영주」를 중간한 것이다.

우측에는 4종의 불인(佛印)을 중심으로 제죄능멸(諸罪能滅), 선신수호(善神守護) 등의 표기와 함께 18종의 부적 도상이 실려 있으며, 불인과 부적 도상 중앙에 “萬曆己卯(1579)季冬 比丘 淡晶之印出”이라는 간기가 있다. 좌측에는 「멸악심취신주(滅惡心趣神呪)」라는 명칭과 함께 티벳문 만다라 도상이 실려 있는데, 이 도상은 1579년 중간시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7 일체여래심비밀사리보협다라니
一切如來心秘密舍利寶篋陀羅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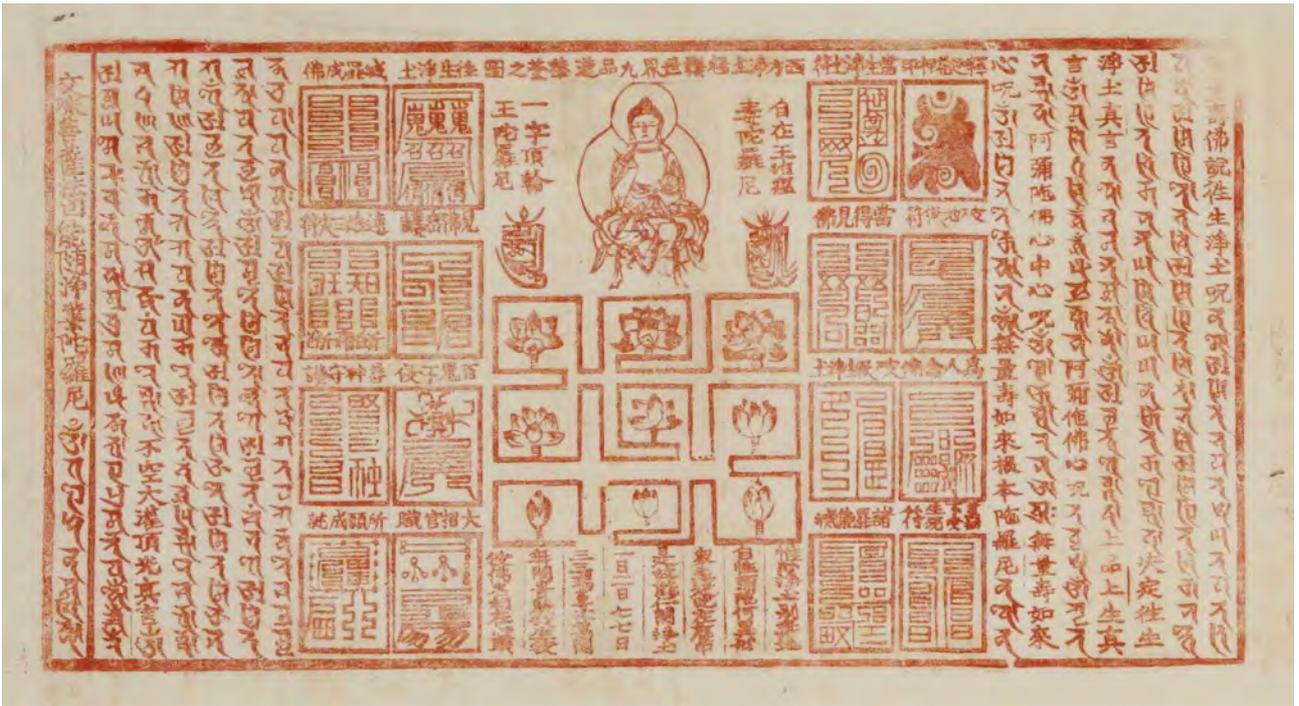
높이 26.7cm, 너비 48.5cm, 松林寺 1657年(孝宗 8)



고려본 「팔엽심련삼십칠존만다라, 일체여래심전신사리보협진언」의 중간분에 해당한다. 왼쪽 도상부는 「구성신회(九成身會)」를 표현한 것으로, 중앙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이 놓이며 그 안에 총 37존이 배치된 형태이다. 외곽에는 4층의 원권(圓券) 안에 「일체여래심전신사리보협진언」이 쓰여 있다. 도상부 우측에는 “順治14年丁酉(1657)六月日 七谷 松林寺刊”이라 간기가 있으며, 보협진언(寶篋眞言)과 다라니가 범자로 쓰여 있다. 동일 형식 중 간기 부분이 비워진 형태의 다라니가 발견되기도 한다.

18 무량수여래다라니
無量壽如來陀羅尼

높이 40cm, 너비 60cm, 發行者不明 17世紀



우측에는 「무량수불설왕생정토주」와 「결정왕생정토진언」, 「상품상생진언」, 「아미타불심주」, 「아미타불심중심주」, 「무량수여래심주」, 「무량수여래근본다라니」 등 7종의 진언이 범자로 있다. 「무량수여래근본다라니」의 경우 앞의 일부만 쓰여지고 나머지는 중앙 좌측으로 이어진다. 중앙에는 '서방정토극락세계구품연화대지도'라는 문구와 함께 아미타불 도상과 자재왕치온독다라니, 일자정륜왕다라니 등 2종의 다라니가 있다. 하단에는 「아미타구품연화도」 도상 및 게송이 있다. 중앙의 아미타불 내지 구품연화도 도상 좌우에는 4행에 걸쳐 각각 사각의 궤 안에 당득견불(當得見佛), 원리삼재부(遠離三災符) 등의 표기와 함께 16종의 부적 도상이 있다. 이어 좌측에는 우측 7종의 진언에 이어 「불공대관정광진언」과 「문수보살법회능수정업다라니」가 쓰여 있다.

불교조각(佛敎彫刻)



19 금동관세음보살입상
金銅觀世音菩薩立像

높이 15.9cm, 너비 7.8cm, 삼국시대



화염문의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한 관세음보살 판불(板佛) 입상으로, 고부조(高浮彫)를 하여 앞을 돌출시킨 형태이다. 머리에는 아미타불을 모신 화관(花冠)을 쓰고 있으며, 시무외여원인(施無畏與願印)의 수인을 하고 있다. 여원인의 수인(手印)은 약지와 소지를 구부린 형태로, 5세기 후반 이후 북위(北魏) 불상에서 볼 수 있는 곡지(屈指) 양식이 나타나 있으며, 옆으로 뻗혀진 옷자락의 포복(袍服) 형태 역시 북위 불상에서 볼 수 있는 고식(古式)을 보이고 있다.

화관의 경우, 부여 규암리 출토의 6세기 후반 금동관음보살상과 유사한 형태로, 요패(腰佩)와 수식(垂飾) 또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시무외인과 여원인을 한 손이 거의 평행으로 이루고 있는 점과, 하단부의 축의 형태, 얼굴의 소박한 미소 등은 백제 후반의 불상임을 연상케 한다.

20 금동여래입상 金銅如來立像

높이 17.5cm, 통일신라



머리는 고식(古式)에 따른 소발(素髮)과 상투 모양의 육계(肉髻)를 갖추고 있다. 미소를 머금은 원만한 상호와 함께 신체 비례는 균형을 보여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우측 발에 체중을 실은 채 몸이 약간 좌측으로 휘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

수인(手印)은 시무외인(施無畏印)과 여원인(與願印)의 통인(通印)으로, 양손의 벌어진 손가락이 수평에 근접한 점으로 보아 통일신라 중반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안에는 편삼(偏衫)과 군의(裙衣)를 착용하고 있으며, 의습(衣褶)은 양각으로 처리한 채 대의(大衣)의 의문(衣紋)은 신체 굴곡에 따라 번파식(翻婆式)으로 반복되어 있다. 군의(裙衣) 자락이 발목까지 늘어져 있어, 대의(大衣)의 번파식 표현에 대한 파형(破形) 속에 공간의 정제 역할을 하고 있다.

불상 뒷면은 구멍이 뚫려진 통불(筒佛)로, 뒷면 가슴 부분에는 광배(光背)를 끼워 넣기 위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대좌(臺座)와 광배는 유실된 상태이며, 도금(鍍金)은 적동색(赤銅色)을 띤 채 상당 부분 박락(剝落)된 상태이다.

보살상과도 같은 섬세한 신체 표현과 안면의 고졸한 미소는 신라적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1 금동일광삼존보살입상
金銅一光三尊菩薩立像

높이 10.3cm, 너비 5cm, 통일신라



거신광(巨身光)의 광배(光背)를 한 금동(金銅) 판불(板佛) 입상(立像)으로, 도금(鍍金)은 녹으로 덮여 있다. 별도로 제작되어 불상 뒷면에 부착된 광배의 경우 중앙의 이중 원권(圓圈) 안에 연화문을 한 두광(頭光)이 희미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밖으로 거신광(巨身光)이 표현되어 있다. 광배 상부에는 운문(雲文) 내지 화불(化佛)의 흔적이 보이며, 광배 하부 좌우에는 협시(脇侍)가 희미하게 표현되어 일광삼존(一光三尊)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불상은 양련과 북련의 대좌 위에 서있는 채, 시무외여원인(施無畏與願印)의 수인을 하고 있다. 여원인의 경우 북위(北魏) 불상에서 볼 수 있는 곡지(曲指) 양식이 나타나 있다. 군의(袪衣) 매듭은 가슴에서 무릎까지 드리워져 있으며, 새 날개처럼 뻗혀진 옷의 포복(袍服) 형태 역시 북위 불상에서 볼 수 있는 고식(古式)을 하고 있다. 머리에 보관(寶冠)이 표현되며, 보관 밑의 보발(寶髮)이 어깨까지 걸쳐진 점을 미루어 보살상으로 여겨지나, 수인(手印) 및 일광삼존의 형식으로 미루어 볼 때 불상(佛像)으로 조성된 것이라 하겠다. 얼굴의 소박한 미소 등에서 백제풍을 느낄 수 있으며, 수인(手印)이 수평에 근접한 점을 미루어 통일신라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22 석조대세지보살입상
石彫大勢至菩薩立像

높이 75cm, 너비 25cm, 고려중기



머리 위에는 전체 면에 당초문이 새겨진 낮은 원통형 보관이 씌워졌으며, 보관 중앙에 정병이 새겨져 「대세지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사각형 얼굴 형태와 납작한 코, 오무린 채 위로 솟은 두툼한 입술의 형태로, 눈은 반쯤 감은 채 원만한 귀족적인 상호(相好)를 갖추고 있다. 보관 밑에 흘러내린 보발(寶髮)은 귀를 감싸고 목에서 어깨와 몸 뒤쪽까지 걸쳐져 있으나, 이 보살상의 경우 목이 파손 수리되어 귀에서 어깨에 이르는 보발의 중간 부분은 유실된 상태이다.

몸에는 대의(大衣)를 걸치고 가슴 중앙에 다섯 가닥의 영락(榮樂)이 표현되어 있으며, 대의 안에 군의(裙衣)를 착용한 상태로 양손에는 지물(持物)을 진 모습이다. 군의(裙衣)의 매듭 선은 두 갈래로 무릎 가까이까지 내려오며, 의문(衣紋)은 신체 굴곡에 따라 번파식(翻婆式)으로 반복되어 있다. 군의(裙衣) 자락은 발목까지 늘어진 채 군의 하단부에 오(오메가) 형의 주름이 표현되어 있으며, 옷자락 밑으로 양발이 약간 드러난 형태이다. 뒷면은 청자 매병(梅瓶)과 흡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사각형의 얼굴, 납작한 코, 위로 솟은 입술, 군의 하단부의 오(오메가) 표현 등으로 미루어, 고려초 내지 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23 청자철채나한좌상
靑瓷鐵彩羅漢坐像

높이 22cm, 너비 7.8cm, 고려



고려 후기에 조성된 청자 나한상이다. 눈동자와 눈썹을 철채(鐵彩)로 그려 두었다. 머리 위에는 구멍이 뚫려 있으며, 몸체는 두꺼운 태토로 만들어진 채, 내부는 비어진 형태이다. 해학적인 얼굴 모습을 한 채 지물(持物)을 든 존자의 모습으로, 청자의 색 등을 고려해 볼 때 13세기 이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4 금동사천왕상
金銅四天王像

높이 6.4cm, 고려



사천왕상을 소형으로 제작한 것이다. 소탑(小塔) 기단부 장식을 위해 쓰인 것으로 추정되며, 각각 밑 부분에는 대좌에 꽂기 위한 축이 달려 있다. 호림박물관 소장품의 금동소탑 기단부 난간에 장식된 사천왕상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다. 일부 도금의 흔적이 보인다.

25 청동주악동자상
靑銅奏樂童子像

높이 3.5cm, 고려



소탑(小塔) 기단부 장식을 위해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악동자상(奏樂童子像)이다. 각각 법라(法螺)와 바라[鉞], 생황(笙簧) 등을 연주하는 모습이 구성되어 있다.

26 목조보살좌상
木彫菩薩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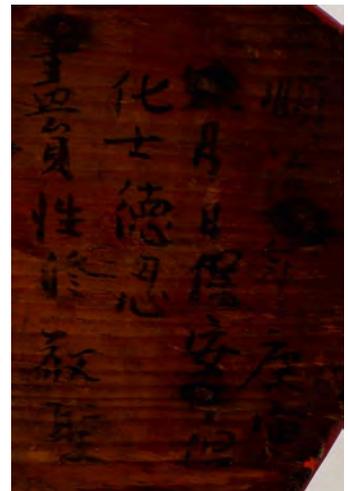
높이 45cm, 조선전기(1550년경)



목조보살좌상으로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 추정된다. 머리에는 금속제 보관(寶冠)이 씌워져 있으며, 보관의 경우 보관의 꽃 장식이 유실된 상태이다. 보관 밑에 흘러내린 보발(寶髮)은 귀를 감싸고 있다. 대의(大衣)는 반단식(半袒式) 편단우견(偏袒右肩)으로, 오른쪽 어깨의 대의 자락은 팔목과 복부를 거쳐 무릎을 덮은 후 왼쪽 어깨로 넘어가 U자형을 이루며, 반대쪽 대의 자락은 왼쪽 어깨를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군의(裙衣)와 접쳐진 채 무릎 부분을 덮고 있는 모습이다. 보살상 뒷면은 목 주위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 자락이 엉덩이까지 늘어진 모습이다. 1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보관을 포함한 전체 높이는 약 45cm 크기이다. 불상 외부의 개금(蓋金)은 벗겨진 채 옷칠만 남아진 형태로, 옷칠 밑 부분에 수차례 개금을 한 흔적이 보인다. 탄소동위원소의 연대 추정으로 1550년경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7 목조지장보살좌상
木彫地藏菩薩坐像

높이 45cm, 1650년(順治7)



승려형의 머리를 한 지장보살 좌상으로, 승각기(僧脚崎) 위에 편삼(偏衫)과 대의(大衣)를 걸친 모습이다. 대의(大衣)는 반단식(半袒式) 편단우견(偏袒右肩)으로, 오른쪽 어깨의 대의 자락은 팔목과 복부를 거쳐 무릎을 덮은 후 왼쪽 어깨로 넘어가 U자형을 이루며, 반대쪽 대의 자락은 왼쪽 어깨를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군의(裙衣)와 겹쳐진 채 무릎 부분을 덮고 있는 모습이다. 보살상 뒷면은 목 주위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 자락이 허리까지 늘어진 모습이며, 하품중생(下品中生)의 수인(手印)을 하고 있다.

불상 밑면에는 “順治七年庚寅 / 月日 保安但 / 化士 德忍 / 畫員 性修 敬聖”이란 묵서(墨書)가 쓰여 있어 1650년(순치7) 수화승(首畫僧) 성수(性修)와 경성(敬聖)에 의해 조성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대의(大衣)의 의습(衣褶) 표현은 같은 연대에 무염(無染), 성수(性修), 경성(敬聖) 등에 의해 조성된 무주 관음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과 흡사함을 볼 수 있다. 성수(性修)는 무염(無染, 1633~1656)의 제자로, 위 지장보살상은 1651년 무염이 조성한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흡사하다.

28 목조지장보살좌상
木彫地藏菩薩坐像

높이 20cm, 너비 13.3cm, 조선후기



승려형의 머리를 한 지장보살 좌상으로, 전체 비례 가운데 상체가 길게 표현된 모습이다. 대의(大衣)는 반단식(半袒式) 편단우견(偏袒右肩)으로, 오른쪽 어깨의 대의 자락은 팔목과 복부를 거쳐 무릎을 덮은 후 왼쪽 어깨로 넘어가 U자형을 이루며, 반대쪽 대의 자락은 왼쪽 어깨를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군의(裙衣)와 겹쳐진 채 무릎 부분을 덮고 있는 모습이다. 보살상 뒷면은 목 주위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 자락이 허리까지 늘어진 모습이다. 상체가 길게 표현된 보살상의 비례 및 의습(衣褶) 표현, 목불 내부의 부식 등을 미루어 17세기말~18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왼손에는 장상명주(掌上明珠)가 얹혀 있으며, 오른손은 중품중생(中品中生)의 수인(手印)을 하고 있다. 불상 밑면에 “大佛口”이란 묵서 기록이 보이며, 불상 내부의 뒷면 복장구 부분에서도 묵서 기록이 발견된다.

복장(腹藏)에서 수습된 「복장개금점안연기(腹藏改金點眼緣起)」에 의하면 故 전강영신(田岡永信)을 증명법사로, 회주(會主) 송담정은(松潭正隱)을 회주로, 금어(金魚) 인법(印法)거사에 의해 1977년(불기2520) 9월 17일 개금(改金) 점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복장에는 후령통을 대신해 무궁화가 새겨진 은제 팔찌 형태의 기물이 납입(納入)되며, 그 안에 오향(五香), 오약(五藥)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납입된 6개의 주머니 안에는 각각 오곡(五穀)과 경면주사 및 금(金)을 담고 있으며, 주서(朱書) 진언을 납입한 채 복장구(腹藏口)를 <옴>자(字)의 주서(朱書)로 봉한 형태이다.

29 목조동자입상 木彫童子立像

높이 54cm, 너비 29cm, 조선후기



동자상은 명부전 내 시왕상을 보좌하는 시자(侍子)로 봉안된 존상이다. 명부전 내에 봉안된 동자상은 선동자(善童子), 악동자(惡童子)로 구분되며, 소조(塑造) 내지 목조로 제작되고 동남 동녀의 모습으로 조성된다. 동자상의 머리는 2개의 상투를 튼 쌍계(雙繫)거나 머리카락을 길게 드리운 형태이며, 양손에는 두루마리, 붓, 버루, 봉황, 호랑이, 자라, 수박 등 다양한 지물(持物)을 들고 있다. 명부전 등 전각 내에 봉안된 동자상 수량은 최소한 10구 이상이 된다.

위 동자상은 타원형의 단(壇) 위에 서 있는 채, 승려형의 민머리를 하고 있다. 의복을 걸치지 않은 나신(裸身)의 형태이며, 목과 손에는 청색과 주색이 어우러진 천의(天衣)가 드리워져 있다. 손에는 수박으로 추정되는 지물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뒷면 복장낭에서 18세기 다라니와 발원문이 수습되어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다.

불교회화(佛敎繪畵)



30. 고양 원각사 신중도

高陽 圓覺寺 神衆圖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84호)

높이 121.5cm, 너비 108cm, 견본채색, 1778년



본 신중도(神衆圖, 帝釋天龍圖)는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에는 제석천(帝釋天)을 중심으로 좌우에 일월천자(日月天子), 주악천(奏樂天) 및 동자(童子)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위태천(韋馱天)을 중심으로 천룡팔부(天龍八部)를 배치하였다.

상단 중앙의 제석천은 화관(花冠)을 쓰고 손에 보화(寶花)를 받쳐 든 채 상체가 드러나 있으며, 뒤에는 병풍이 둘러져 있다. 넓적하면서도 둥근 얼굴에 작은 이목구비, 당당한 신체, 가장자리가 화려하게 장식된 옷을 걸친 제석천의 모습은 신중들의 우두머리로서 위용을 잘 보여준다.

제석천 주위에는 일천자(日天子) 및 월천자(月天子)와,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천(奏樂天)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며, 공양동자상 등 좌우에 각각 5위씩의 인물을 배치하였다. 하단 중앙에는 위태천(韋馱天)이 합장한 채 정면을 향해 있으며, 양옆에는 용왕과 좌우 각각 4위의 천룡팔부중(天龍八部衆)이 손에 무기를 든 채 호위하고 있다.

본 작품은 1778년(乾隆43) 조성된 것이다. 김희손(金喜孫)과 봉혜(奉慧) 등이 주 시주자로 기록되며, 수화사(首畫師) 포관(抱冠) 및 성잠(性岑), 수엽(守擘), 서인(瑞印), 행징(幸澄) 등 화승(畫僧)이 조성에 관여하였다.

31 현왕도 現王圖

높이 101cm, 너비 75.6cm, 견본채색, 1780년



본 현왕도(現王圖)는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에는 7곡 병풍을 배경으로 의자에 앉은 현왕(現王)과 좌우측에 홍의(紅衣)·청의(青衣)를 걸친 채 일산(日傘)과 단선(團扇)을 든 시자(侍者)가 자리하고 있다. 하단에는 2위의 판관(判官)과 사자(使者)들이 그려져 있다.

현왕은 화면 상단 중앙에 녹색 두광(頭光)을 뒤로 한 채 호랑이 모피가 깔린 의자에 앉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머리에 원류관(遠遊冠)을 쓰고, 그 위에 『금강경』을 얹고 있다. 현왕 하단 좌우에는 주선판관(主善判官)·주악판관(主惡判官) 등 판관이 중생 선악(善惡)을 기록한 명부책(冥府冊)을 들고 서 있다. 그 아래에는 활(笏)과 장부를 손에 든 사자(使者)가 그려져, 현왕의 명령에 따라 중생을 명부제로 불러들일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현왕도는 1780년(건륭45) 안동 학가산 광흥사에서 <제석천룡도>와 함께 조성된 것으로, 18세기 후반의 화엄강백 남악영오(南嶽映晤)의 증명 하에 (화사) 용○(龍○)과 수일(守一) 등이 조성한 것이다. 현존 현왕도 중 이른 시기의 작품에 해당한다.

32 아미타삼존도
阿彌陀三尊圖

높이 52cm, 너비 54.5cm, 견본채색, 1860년



중앙의 아미타불 좌상을 중심으로 감로병(甘露瓶)을 손에 든 백의관음(白衣觀音)과 석장(錫杖)을 들고 있는 지장보살 입상 등 아미타삼존을 그리고 있다. 삼존의 배치 및 형태는 원담내원(圓潭乃元)이 조성한 <선암사 원통전 아미타후불홍도>(1835년) 및 금암천여의 <청련암 아미타홍도紅圖>(1860년)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동일 초본을 변형시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아미타삼존도>는 1860년(咸豐10) 고흥 운람산 수도암(修道庵)에서 미타원불(彌陀願佛)로 조성, 이후 순천 선암사 대승암(大乘庵) 염화실(拈花室)로 이운된 것이다. 당시 강백(講伯) 침명한성(枕溟罕醒, 1801~1876)이 증사(證師)로 기록되며, 금어(金魚) 육종(六宗)이 화성(畫成)한 것이다. 불당(佛堂)에 봉안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인 처소에 모시기 위한 원불화(願佛畫)로, 중품하생인(中品下生印)의 수인(手印)을 하고 있다. <아미타삼존도>의 증사(證師)인 침명한성(枕溟翰醒)의 거처 염화실(拈花室)에 침명한성이 모셨던 원불화(願佛畫)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화승(畫僧) 육종(六宗, -1860-)은 금암천여(錦巖天如, 1794~1878)의 문인(門人)으로 추정되며, 1860년 금암천여와 함께 <선암사 청련암 아미타홍도紅圖>와 <선암사 청련암 신중도>를 조성하였다.

33 국사당산신도 國師堂山神圖

높이 125cm, 너비 92cm, 견본채색, 1878년



노송(老松) 한그루와 기암괴석 사이로 흐르는 폭포수를 배경으로 중앙에 호랑이를 거느린 산신이 바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산신은 근엄하면서도 인자한 얼굴 표정을 했으며, 가슴까지 길고 검은 수염을 늘어뜨렸다. 머리에는 투명 두건을 쓰고, 푸른 바탕에 금색 문양이 새겨진 붉은색 도포를 입은 채 왼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다.

우측 하단에는 동남동녀가 묘사되며, 동녀(童女)는 쟁반에 천도복숭아를, 동남(童男)은 또 다른 공양물을 받쳐 든 모습이다. 산신의 무릎 밑으로는 호랑이가 익살스럽게 표현되었으며, 호랑이는 두 동자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해학적이며, 동시에 현대 추상화를 보는 듯한 필체가 느껴진다.

1877년(光緒 4) 국사당(國師堂)에 봉안한 산신탱(山神幀)으로, 증사로는 포봉당(抱鳳堂) 봉선(奉善)이, 금어(金魚)로는 금호당(錦湖堂) 약효(若孝)와 용파당(隆坡堂) 법융(法融) 등이 기록되어 있다. 시주자는 1876년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한 조병식(趙秉植, 式)과 부인 윤씨이며, 보경(普鏡)과 탄연(坦然) 등 비구니가 화주가 되어 제작한 것이다.

34 백의관음보살도 白衣觀音菩薩圖

높이 77cm, 너비 91cm, 마본채색, 1880년



무명바탕에 관음보살과 각종 내용의 범자 다라니를 함께 표현한 특이한 구성의 관음보살도이다. 직사각형의 4면 바깥쪽에는 테두리를 만들고 백색을 칠한 후 붉은색으로 범자를 써 두었으며, 그 안에는 마치 '금자(金字) 사경(寫經)'을 연상시키듯 감색(紺色) 바탕에 금자(金字)로 범자 경문을 써 두었다. 다시 그 안에는 흡사 만월(滿月)을 연상케 하는 큰 원, 일명 '대월륜(大月輪)'의 거신광을 그리고 주존인 백의관음(白衣觀音)을 배치했다.

관음보살은 녹색의 원형 두광(頭光)과 연봉형의 청색 신광(身光)을 갖춘 채 정면을 향해 윤왕좌(輪王坐) 자세로 앉아 있다. 녹색의 군의(裙衣)를 입은 채 백색 베일을 걸치고 있으며 보관에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다. 관음은 양어깨에서 가슴 언저리까지 보발(寶髮)은 드리운 채 화려한 요패(腰佩)와 영락(瓔珞)을 두르고 황금 깔개에 앉아 있다. 관음보살의 좌측에는 쌍계(雙髻)로 머리를 튼 선재동자(善財童子)가 시립해 있고, 관음의 우측에는 용왕(龍王)이 산호를 손에 받쳐 들고 공양을 올리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용왕의 위로는 암석에 정병(淨瓶)이 놓여 있으며 그 안에는 양류가지가 꽃혀 있고 그 위로는 청조(靑鳥)가 날고 있다. 또한 관음보살 왼쪽 어깨 뒤로는 여러 그루의 대나무가 구름과 더불어 자리하고 있다. 관음보살의 두광과 신광, 그리고 배경이자 거신광의 내부에서는 마치 관음의 위신력을 보여주듯 모두 서기가 뻗어 나가고 있다.



원형 거신광 내 관음의 배경을 담채로 처리해 깊이감을 주었으며 상대적으로 두광과 신평을 갖춘 관음은 각기 다른 진채색이 대비되도록 처리해 '백의'가 시각적으로 잘 보인다. 또한 금니(金泥)가 문자는 물론 장신구와 문양, 서기 등 곳곳에 다량 사용되었으며, 화면의 중앙 하단에는 화기란(畫記欄)이 마련되어 다음 내용이 먹으로 쓰여 있다.

緣化秩 證明 秋淡堂性幸 誦呪比丘 應守 看星比丘 洪善
 金魚比丘 繡龍堂琪銓 鏡潭堂永宣 廷奎 肯律 翰碩 永察 供主比丘 東信
 光緒六年 庚辰四月 二十八日 造成
 願此法界 / 見聞禮供 / 一切含靈 / 將次勝緣 / 同入菩提 / 大道場

이 그림은 광서 6년(고종 17년)인 1880년 4월 28일에 수화사 수룡기전(繡龍琪銓)을 비롯한 총 6인에 의해 그려졌으며, 그림 바탕에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범자 다라니가 쓰여 있다.

북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 ③																		← ④②										동					
↓	32	31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③⑤	
↓ 불정심		②	사	십	이	수	주			①																								① ↓
↓ 관세음보살	③①	⑤	⑩	⑬	⑮	⑰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③⑥	
↓ 모다라니	③④	③⑤	③⑥	③⑦	③⑧	③⑨	③⑩	③⑪	③⑫	③⑬	③⑭	③⑮	③⑯	③⑰	③⑱	③⑲	③㉑	③㉒	③㉓	③㉔	③㉕	③㉖	③㉗	③㉘	③㉙	③㉚	③㉛	③㉜	③㉝	③㉞	③㉟	③⑦		
④ ↓	③⑨	③⑩	③⑪	③⑫	③⑬	③⑭	③⑮	③⑯	③⑰	③⑱	③⑲	③㉑	③㉒	③㉓	③㉔	③㉕	③㉖	③㉗	③㉘	③㉙	③㉚	③㉛	③㉜	③㉝	③㉞	③㉟	③㊱	③㊲	③㊳	③㊴	③㊵	③⑩		
⑤ ↓	③⑩	③⑪	③⑫	③⑬	③⑭	③⑮	③⑯	③⑰	③⑱	③⑲	③㉑	③㉒	③㉓	③㉔	③㉕	③㉖	③㉗	③㉘	③㉙	③㉚	③㉛	③㉜	③㉝	③㉞	③㉟	③㊱	③㊲	③㊳	③㊴	③㊵	③㊶	③⑪		
서 →	⑥	⑦	④①																														← ④①	
	화 기 란																		← ④①										남					

불교공예 (佛敎工藝)



35 화엄석경
華嚴石經

(大) 22×20×6cm, (小) 16.3×10.5×6cm, 통일신라, 7~8세기



화엄석경(華嚴石經)은 『화엄경』을 석판(石版)에 새긴 것이다. 『봉성지(鳳城誌)』에 “670년(문무왕10) 의상대사가 화엄사를 중창할 때 장육전(丈六殿)을 건립하고 주위에 석각(石刻) 『화엄경』을 둘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산산조각 부서진 석경(石經)은 돌무더기 등으로 쌓여 있다가, 일제 말기 장육전 자리를 해체 보수하던 중 수습된 파편들이 상자에 보관되었고, 1961년 황수영 박사 등이 재정리하였다. 현존하는 석경 조각은 1만 4천여 점으로 화엄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보물 제1040호로 지정돼 있다.

화엄석경은 전남 승주군 압곡리 건천저수지 부근에서 발견되는 천매암 돌에 새긴 것으로, 임진왜란 때의 화재로 석경이 파손되었고, 이때 색깔도 회갈색 내지 붉은 색 등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글씨체는 구양순의 해서체(楷書體)가 대중을 이루며, 최치원의 서체라는 설이 있기도 하다. 특히 최치원이 887년에 쓴 쌍계사 「진감국사비문」과 글자체가 비슷하여 이 같은 설이 제기되었다.

화엄석경의 내용은 [60권본 화엄경]을 1행 28자로 각자(刻字)한 것으로, 위 2개의 석경(石經) 편(片)에는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가 번역한 [대방광불화엄경] 중 일부가 새겨져 있다. 큰 석경편의 내용은 『대방광불화엄경(60권본)』 권제14의 「금강당보살십회향품(金剛幢菩薩十迴向品)」(第21之1)의 내용이 쓰여 있다. 작은 석경 편에는 『대방광불화엄경(60권본)』 권제24의 「십지품(十地品)」(第22之2)에 해당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36 녹유리사리병
綠琉璃舍利瓶

높이 5cm, 구연부 2.1cm, 통일신라



함경도 일대에서 수습된 것으로 전해지는 사리병이다. 녹유리(綠琉璃)로 제작되었으며, 사리병 안에서 분홍색 2과(顆), 파랑색 1과 등 변신사리(變身舍利) 3과(顆, 粒, 軀, 枚)가 수습되었다.

37 납석제사리호
蠟石製舍利壺

높이 5.2cm, 너비 6.5cm, 통일신라



납석(蠟石)으로 제작된 사리호(舍利壺)이다. 통일신라 사리구의 경우, 8세기 전반까지는 주로 녹유리(綠琉璃) 내지 수정으로 제작되나, 8세기 후반 이후에는 납석으로 제작된 예가 발견된다. 타원형 호(壺)로 상 하단을 관통해 제작하였으며, 하단 부분에는 둥근 석판을 붙여 두었다. 상단은 뚜껑을 별도로 제작해 닫은 형태이다.

38 토제소탑 土製小塔

높이 약 7cm, 통일신라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탑을 수리하거나 소니탑(小泥塔)을 조성해 법에 의거해 다라니주(陀羅尼呪)를 서사(書寫)하면 수명이 다한 자 수명이 길어질 것이요, 병의 고통을 받는 자 고통에서 벗어나며, 지옥 아귀 축생에 태어남을 여월 것이다”는 규범에 따라 8세기 초반 이래, 조탑시(造塔時)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규범에 따른 「근본다라니」 내지 「상륜당다라니」를 소탑과 함께 납탑(納塔)하는 전통이 생겨났다.

통일신라 소탑의 경우 소탑 바닥에 다라니공(陀羅尼孔)을 뚫어 다라니를 봉안할 수 있게끔 하였던 것에 비해, 고려 소탑의 경우는 소탑 바닥에 다라니를 넣을 수 있는 다라니공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통일신라 소탑의 경우 다라니공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다라니가 발견된 예는 없다.

39 은제호신불감
銀製護身佛龕

높이 4.3cm, 너비 2.8cm, 고려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휴대용 호신(護身) 불감(佛龕)이다. 뒷부분은 지붕을 간략히 표현한 채 경사면으로 처리되었으며, 불감 앞면에는 당초문과 선문(線文)을 새겨 장식하였다. 불감 안에는 공작 위에 올라탄 공작명왕(孔雀明王)이 고부조의 타출(打出)로 새겨진 채 도금되어 있으며, 문(門)과 자물쇠 모양을 새긴 은판으로 덮개를 끼워둔 상태이다. 불감 뒷면에는 비사문천(毘沙門天)이 새겨 있으며, 불감의 하단을 잡아당겨 문 모양의 덮개와 상(像)이 불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제작되었다.

40 은제사리합
銀製舍利盒

높이 8cm, 너비 6.7cm, 고려



은제(銀製) 사리합(舍利盒)으로, 상하 각각 육화형(六花形)의 반구(半球)가 포개져 구형(球形)을 이루는 형태이다. 상하 각각 전체 면에 보상화문이 선각(線刻)되어 있으며, 사이의 여백에는 어자문(魚子文)이 촘촘히 채워져 있다. 상단은 꼭대기 부분은 도금(鍍金)되어 있으며, 그 위에 손잡이 부분이 돌출된 형태이다. 손잡이 꼭대기 보주 부분은 유실된 상태로, 연봉 내지 구형의 유리 또는 수정이 감입(嵌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대에 조성된 불국사 석가탑 출토의 사리합이 계란형인 것을 미루어, 시대 변천에 따른 사리합의 기형(基形) 변화를 볼 수 있는 자료이다.

41 금동준제관음도판
金銅准提觀音圖版

높이 27.6cm, 너비 22.2cm, 고려



복련(覆蓮)과 양련(仰蓮)의 연화대 위에 결가부좌한 보살상의 모습이 선각(線刻)된 판불 형태의 유물이다. 몸에는 군의(裙衣)와 왼쪽 어깨에 가사를 둘러맨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허리 부분의 X자형 요패(腰佩)와 가슴과 목 부분에는 화려한 영락(瓔珞)이 두드러져 보이고 있다.

머리에는 화관을 쓴 채 이중의 두광(頭光)이 표현되어 있으며, 목 부분에는 삼도(三道)가 두드러져 있다. 양옆에 각각 4개의 팔을 갖춘 팔비(八臂)의 형태이다. 왼쪽으로부터 ①창1, ②창2, ③여의, ④금강저, 오른쪽으로는 ⑤견색, ⑥연꽃, ⑦활, ⑧도끼 등 지물을 지닌 모습을 하고 있다.

42 청동소탑
靑銅小塔

높이 26.5cm, 너비 6cm, 고려



방형의 기단 한쪽에 계단을 올리고, 그 위로 높이와 크기를 조금씩 줄여나간 7층의 금동 소탑이다. 도금 부분은 일부 유실되었으며, 일부는 녹으로 덮여진 상태이다. 2층의 기단부는 상, 중, 하대로 구성되었고, 여기에 안상(眼象)과 난간 형태를 두었다. 기단부와 1층 탑신부 사이에는 계단을 두었으며, 계단에는 난간 형태를 조성해 두었다.

탑신부 각층에 안상을 두었으며, 지붕 위 낙수 면에는 기왓골을 조성하고 지붕 끝단에는 각각 치미(鴟尾)를 장식하였다.

상륜부는 노반과 복발, 양화, 보륜, 보개, 보주, 찰주가 순서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고려탑 상륜부 연구에 중요 자료가 된다.

이 소탑은 탑 안에 봉안된 사리장엄구의 하나로, 상륜부의 노반 및 복발부에 원(元)의 양식이 보이고 있는 점을 미루어, 대략 13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43 청동소종
靑銅小鐘

높이 19cm, 지름 12cm, 고려후기



고려 후기의 소종으로, 단룡(單龍)에 음통(音筒)과 양련(仰蓮)의 화문(花文)이 표현된 상대(上帶)와 연화문 당좌, 유곽(乳廓) 등 한국 범종의 전형적인 양식을 갖추고 있다. 한국 범종의 특징에 따라 배 부분이 넓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약간 안쪽으로 좁아지는 항아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천판(天板) 위에는 용뉴(龍鈕)와 음통(音筒)이 있으며, 용뉴의 경우 단룡(單龍)으로, 몸을 심하게 구부려 머리 부분이 아래로 향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

유곽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 형태로, 가장자리는 뇌문(雷文) 형식의 회문(回文)이 장식되어 있다. 유곽과 당좌 사이에 2구의 상(像)이 앞뒤에 조각되며, 합장한 채 두 다리를 교차하여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머리에는 가운데 부분이 높이 솟은 보관을 쓰고 있으며 이목구비(耳目口鼻)가 간략하게 표현된 형태이다. 하대(下帶)에는 보상당초문(寶相唐草文)이 표현되어 있다. 용두 부분은 일부 파손된 상태이다.

44 을유명금고 乙酉銘金鼓

지름 27.5cm, 두께 6.7cm, 고려, 1285년



앞면은 당좌부(撞座部), 내구(內口), 외구(外口)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3중의 선으로 구획되어 있다. 중앙 당좌부인 지방(子房)에는 19개의 연과(蓮顆)가 두드러지게 양각되어 있으며, 내구에는 11면의 연잎이 중첩되어 총 22면의 연잎이, 외구에는 당초문이 양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뒷면은 넓게 뚫린 구멍과, 좁은 폭의 전으로 구성되었다. 옆면은 중앙에 3중의 선이 양각되어 있고, 양각된 선 위 상단 부분에는 금고를 매달 수 있게끔 2개의 고리가 달려 있다. 외구 상단 중앙에는 주조(鑄造) 당시 쇳물을 붓기 위한 주입구가 두드러지며, 내구 및 외구에 걸쳐 주조시 형태를 유지키 위해 시설한 형지(形持) 자국이 외구에 6개, 내구에 8개 등 총 14개가 보이고 있다.

옆면에는 정으로 쪼아 총 32자의 축조(蹴彫) 명문(銘文)을 새겨 넣었다. 명문(銘文)에 의하면, 위 금고는 1285년(乙酉) 언광(言光) 등의 시주로 익곡현(翼谷縣) 안선사(安禪寺)에서 주조된 것으로, 장인(匠) 김원(金元)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다섯근(伍斤)으로 만들어진, 고려시대 금고 중 중형 정도의 규모에 속하는 것이다.

45 청동금강령
靑銅金剛鈴

높이 20cm, 너비 8cm, 고려



번뇌를 없애준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금강저(金剛杵)가 불교의식용 요령(搖鈴)으로 변화한 것으로, 금강령(金剛鈴)이라 칭한다. 불교의식을 행할 때 소리를 내어 불보살을 기쁘게 해주고, 어리석은 중생의 불성(佛性)을 깨닫게 하여 성불의 길로 이끌어 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금강령은 고부(鈎部)와 병부(柄部), 영신부(鈴身部)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신(鈴身)의 문양 내지 고부의 형태에 따라 명칭이 부여된다.

이 금강령은 고(鈎)가 5개인 오고령(五鈎鈴)으로, 영신부에는 불법 수호의 호법중(護法衆)으로서 명왕(明王)이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영신의 하단은 육릉형(六稜形)으로 되어 있고, 영신의 어깨에는 복련의 연화문이 양각되었다. 손잡이 부분에는 중앙의 환(環)을 중심으로 2조의 복련과 앙련이 조성된 형태이다.

46 청동금강저 靑銅金剛杵

길이 24cm, 너비 6.8cm, 고려



금강저(金剛杵)는 인도말로 Vajra라고 하는데, 본래 병기(兵器) 즉 무기(武器)란 뜻을 지니고 있다. 주로 밀교(密敎) 종파에서 법식(法式)을 행할 때 사용한 것으로, 법상(法床)에서 법주(法主)가 들고 허공에 휘저으면 아수라와 귀신들이 인간 세계에 범접하지 못하고 도망친다고 한다. 또한 제석천왕이 중생의 예토(穢土)를 굽어보며 마군(魔軍)의 무리에 시달리는 번뇌를 없애주고자 금강저를 항상 손에 지니고 다닌다고 한다.

『대일경(大日經)』에서 벌절라(伐折羅, Vajra)는 여래금강지인(如來金剛智印)으로 능히 중생의 무상(無相) 번뇌를 파괴한다고 말하고 있듯, 삶의 벌판에 끝없이 일렁이는 고통의 물결을 잠재우는 영험 있는 법구(法具)이다. 이런 뜻에서 금강저에는 지혜의 뜻이 있으며 법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금강저는 보살심(菩薩心)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수행할 때 쥐고 있으면 손에 무게를 주어 묵중하고 엄정한 기운을 감돌게 한 채 온갖 잡념과 방해물을 굴복시켜, 수행자를 깨끗한 불성(佛性)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

금강저는 쇠나 구리 또는 나무로 만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양 끝을 하나의 가지(鈷)로 만든 것은 독고저(獨鈷杵), 세 개의 가지(鈷)로 만든 것은 삼고저(三鈷杵), 다섯은 오고저(五鈷杵) 등으로 불린다.

47 청동정병 靑銅淨瓶

높이 43cm, 너비 16.5cm, 고려



정병(淨瓶)은 수병(水瓶), 감로병(甘露瓶) 또는 보병(寶瓶)이라 하며, 범어(梵語) 군디카(Kundika)의 번역어이다. 차[茶]나 맑은 물을 담은 불교 공양구 중 하나이다. 본래 「대승비구 18물」 중 하나인 물병으로, 차츰 부처님께 정화수를 바치는 공양구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관세음보살이 지니고 다니는 지물(持物)로 인식된다. 정병을 손에 든 관세음보살을 「군다리(kundari) 보살」이라 칭하며,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갈증을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군다리보살은 구제자의 의미를 지닌다.

정병은 가늘고 긴 목과 어깨, 불룩한 몸체를 지닌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형태로 ①동체(胴體), ②경부(頸部), ③첨대(尖臺), ④귀때 등으로 구분된다.

①동체(胴體)는 아래로 자연스런 S자형을 그리며 반전하여 굽에 이르러 살짝 외반한 모습을 보인다. 동체(胴體)의 넓은 어깨에는 주둥이처럼 생긴 입수구(入水口)인 귀때가 있어 뚜껑이 달려 있다. 동체 위에 형성된 ②경부(頸部)는 어깨선에서 긴 목이 올라오다 중간 부분에서 살짝 외반하면서 접시를 엮어 놓은 모양의 턱을 거친 다음 다시 좁아진 모습을 보인다. 경부(頸部) 뒷부분에는 한 줄의 선이 음각되어 있으며, 그 위로는 ③6각형의 형태를 한 첨대(尖臺)가 뾰족이 솟아 있으며, 구멍이 뚫려 출수구(出水口) 역할을 하고 있다. 첨대 끝부분에 한 줄의 선이 깊이 음각된 모습이 보인다.

48 동제정병
銅製淨瓶

높이 26cm, 너비 15.5cm, 고려



동제(銅製) 정병(淨瓶)으로, 일반 정병과는 달리, 경부(頸部)와 첨대(尖臺) 부분이 분리되는 형태이다. 경부(頸部)에 형성된 구연부 위에, 첨대(尖臺) 부분이 <정병의 뚜껑과 손잡이 역할>로써 만들어진 모습이다. 뚜껑 및 손잡이에 해당하는 첨대 부분은, 밑 부분에 2개의 금속제 판이 맞닿아 있는 채, <집게> 모양을 하고 있다.

『범망경』에 정병(淨瓶)의 용도에 대해 “관정의식(灌頂儀式)에 사용함”을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 같은 형태의 정병은 관정의식을 행할 때, 정병의 감로수를 <집게> 형태에 물린 <숨> 등에 묻혀, 의식 참가자의 이마 등에 적시었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첨대 부분인 뚜껑 손잡이 부분은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정병 뚜껑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병의 몸체 부분의 기형(器形)이 신라 정병과 같이 세장(細長)함을 보이고 있음을 미루어, 적어도 고려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49 청동향합
靑銅香盒

높이 15cm, 지름 9.3cm, 고려



향을 담는 용기인 향합(香盒)은 향로와 함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된다. 고려시대의 향합은 주로 복발
탑형 용기 내지 원통형 용기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향합의 형태는 당시 사용하던 향이 현재와는 달
리 덩어리 형태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향합은 뚜껑과 몸체로 구분되며, 몸체는 상하 2단으로 나뉘어 있다. 향합 표면에는 미세한 음각
(陰刻) 선이 일정하게 새겨져 있으며, 이는 주조 후 표면을 물레로 다듬은 것으로 여겨진다. 향합
(香盒) 몸체 상단부에는 3면에 구름 모양의 은장식이 붙어 있으며, 장식 안에는 가는 선으로 문양을
축조(蹴彫)해 두었다. 향합 상단부에는 고려시대에 사용된 덩어리 모양의 향이 일부 남아 있어 귀중
한 자료가 된다.

50 청동향완
靑銅香碗

높이 17.3cm, 지름 16.7cm, 고려



넓은 전(顛)이 있는 주발형의 노신(爐身)과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나팔형의 받침대를 지니고 있다. 노신 상단 구연부의 넓은 전은 수평이 아닌 바깥쪽으로 약간의 경사를 두고 올라가다가 끝을 외반한 형태이다.

51 청동발
靑銅鉢

높이 4.2cm, 지름 22.8cm, 고려후기



고려말에 조성된 발(鉢)의 경우 좁은 전(顛)과, 전으로부터 손잡이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부풀어 오른 형태를 보인다. 손잡이 부분은 소형화된 채, 조선 초기 발(鉢)의 형태와 같이 원형의钮(鈕)가 불룩 솟아진 형태를 보인다.

52 청동범자문풍탁
靑銅梵字文風鐸

(大) 높이 7.5cm, 너비 4.6cm, (中) 5.8 × 3.2cm, (小) 4.7 × 3cm, 고려



삼국 내지 통일신라의 풍탁이 대개 타원형 내지 원통형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고려시대에 이르러 풍탁은 몸체가 네 면을 이룬다. 각 면은 아래가 넓고 위가 점차 좁아지는 배부른 사다리꼴을 하고 있다. 4면 가장자리 전체에 테(돌대)를 두르고, 4면의 각 중앙에는 범자(梵字) 한 자씩을 돋을 새김 하였다. 각기 다른 크기의 풍탁에 다른 범자가 새겨 있음을 볼 수 있다. 풍탁의 크기가 다른 점은 모자탁(母子鐸)으로 서로 연결해 달았을 가능성 내지, 탑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점차 작아지는 옥개석에 비례해 상층부로 갈수록 작은 크기의 풍탁을 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판(天板) 중앙에는 원형의 구멍을 뚫어 매달 수 있게 하였다. 풍탁 내부의 치개와 설(舌)은 유실되었다.

53 범자문금동구
梵字文金銅具

지름 2.8cm, 너비 2.9cm, 고려



지름 약 2.8cm 크기로 마고자 형태의 유물이다. 3점 중 2점의 경우, 각각 윗면에 고리가 달려 있어 목에 걸기 위한 장신구로 쓰였거나, 혹은 의식 장엄구에 부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1점은 위 아래에 고리의 흔적이 남아 있어 장식구의 연결고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각각 앞뒷면에 한 글자씩 범자(梵字)가 새겨져 있다. 하나에는 <옴>과 <람>이 앞뒤에 새겨져 있고, 또 하나는 <옴>과 <밤>이 새겨져 있다. 고려시대 유물로, 범자가 새겨진 희귀한 예에 속한다. 청원 주성리 10-1지구 토광묘 12호에서 동일 형태의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54 청동촛대
靑銅燭臺

높이 29.5cm, 너비 11.7cm, 고려



초를 꽂기 위한 촛과 초 받침, 죽절형(竹節形) 간주(竿柱), 간주 받침, 하대받침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촛대이다. 고려 제작 촛대의 경우, 초를 꽂기 위한 촛이 크고 굽게 제작된 예를 볼 수 있다. 초 받침은 간주와 분리되도록 제작되었으며, 그 밑으로는 세 마디의 죽절형 간주와 간주 받침이 놓여 있다. 하대받침은 3단으로 꺾어 제작하였으며, 간주 밑부분과 결합해 두었다. 하대받침 중 가장 밑면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삼족(三足)의 다리를 제외한 부분에는 파형(波形)의 문양을 조성해 장식성을 드러내었다.

55 청동극락조
靑銅極樂鳥

길이 20.5cm, 너비 11.3cm, 고려



『아미타경』에 “불국토에는 아름답고 기묘한 여러 빛깔을 가진 백학, 공작, 앵무새, 사리새, 가릉빈가, 공명조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로 노래한다”는 예에 따라, 극락전(極樂殿)의 닫집 장엄에 극락세계를 형상화하기 위해 이를 조성해 매다는 예가 있다. 이 극락조(極樂鳥) 역시 장엄용 장식일 것으로, 대개 나무로 조성되나 간혹 청동으로 조성된 예가 보인다.

가릉빈가(迦陵頻伽)와 공명조(共命鳥)를 통상 극락조(極樂鳥)라 통칭한 채 조성하며, 이 경우 얼굴 모습은 새의 얼굴이 아닌 인면(人面)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많다. 공명조의 경우는 하나의 몸에 머리 2개가 묘사된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

머리 부분에는 고리가 있고, 꼬리 부분에는 실을 연결해 매달 수 있는 구멍이 나 있다.

56 청자발우
靑瓷鉢盂

높이 8.5cm, 구연부 18.3cm, 고려



발우(鉢盂)는 일반 대접과 달리 밑면의 굽이 생략되며, 발우 윗부분 구연부를 직각으로 세운 독특한 모습을 한다. 고려 후기의 발우는 구연부를 직각으로 세운 대신 안쪽에 선을 표시해, 시각적으로 직각의 구연부를 형상화함이 일반적이다.

57 삭도
削刀

최대 길이 16.8cm, 고려



삭발(削髮)은 머리카락을 밀어 버린다는 뜻으로 신체 일부를 잘라 버리는 행위다. 불가에서는 ‘꿈음’의 상징으로 속세와의 단절, 부처님께 들어가는 문을 두드리는 절차다. 그래서 ‘삭발’은 곧 ‘출가’나 ‘승려가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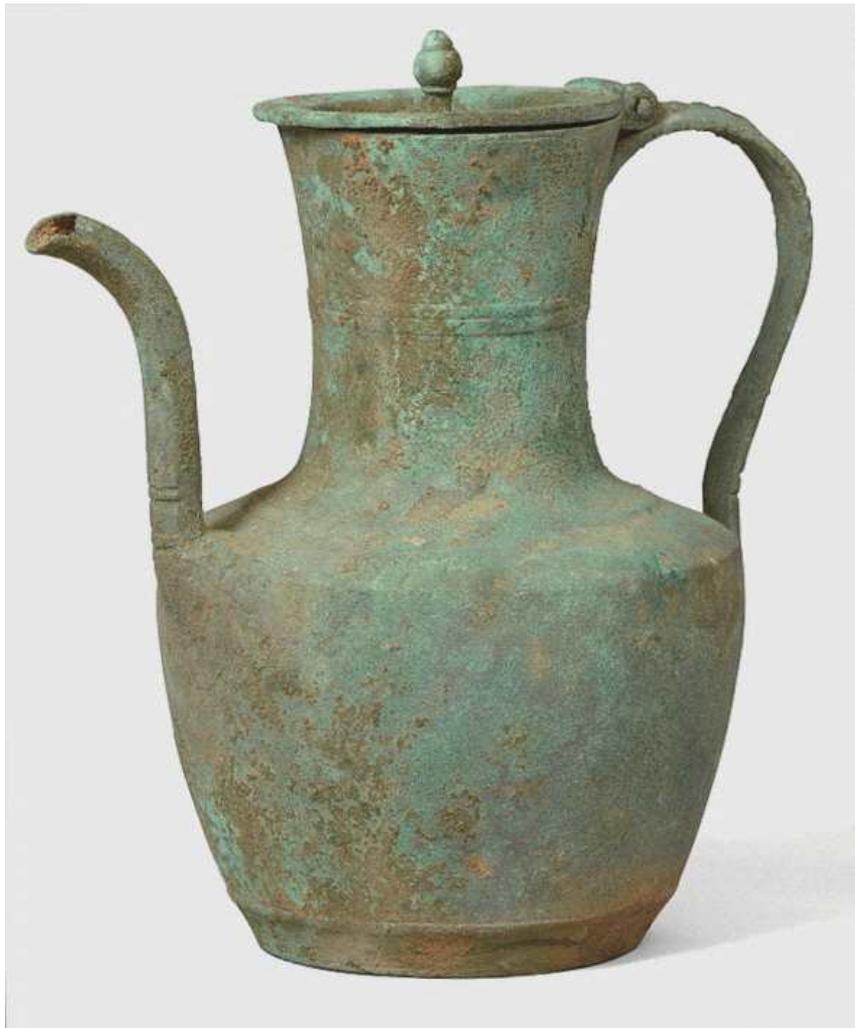
이 유물은 삭발할 때 쓰는 칼, 삭도(削刀)로 위 뭉툭한 삭도의 경우 끝부분에 구멍을 내어 나무 케이스에 접혀 들어가도록 만들어지며, 아래 길쭉한 삭도의 경우 별도의 삭도집 안에 보관된다.

최대 길이 24.8cm, 고려



58 청동주자
靑銅注子

높이 25cm, 고려



역 사다리꼴 몸체 위에 원통형 목이 달린 형태이다. 목의 중앙에는 죽절형(竹節形) 선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위에 연봉(蓮峰) 장식을 한 뚜껑이 놓여 있다. 뚜껑은 손잡이 윗부분에 청동 못과 고리로 연결되어 열고 닫을 수 있게 하였으며, 곡선을 이룬 손잡이는 몸체에 접합된 형태이다. 몸체와 원통형 목이 연결되는 부분에 주구(注口)가 달려 있다. 주구 하단에는 죽절형(竹節形) 마디가 있으며, 주구의 끝부분은 밖으로 휘어져 구멍이 나 있는 형태이다.

12~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청동 주자(注子)의 일반적 형태를 보이는 유물이다.

59 벽송당야로행록집목판
碧松堂野老行錄集木版

높이 21.5cm, 너비 32.5cm, 조선후기, 1709년



『이로행록(二老行錄)』 목판으로, 음각(陰刻)으로 새겨둔 것이다. 『이로행록』은 1569년 묘향산 보현사 간행본과 1690년 울산 운흥사, 1709년 운흥사 간행본 등 세 판본이 있는데, 1690년 운흥사 판본의 경우 통도사에 목판 완질이 전하고 있다.

이 목판은 1709년 운흥사 간행 목판으로 추정되며, 목판 앞면에 벽송당 야로(野老, 嚴長)와 경성당 휴옹(休翁, 一禪) 등 두 인물의 화상(畫像)과 찬문(讚文)이 실려 있다. 목판의 형태를 볼 때, 탁본(拓本) 형식으로 책을 인출(印出)하기 위한 목판임을 알 수 있다.

60 석씨원류목판
釋氏原流木版

높이 21.5cm, 너비 32.5cm, 조선전기, 1569년



『석씨원류(釋氏原流)』 목판(木版)으로, 1556년 중국 개원사 간행본을 바탕으로 1648년 선운사에 서 복각한 것이다. 권두에 명나라 헌종황제의 「어제(御製)석씨원류서(序)」와, 하호연(河浩然)이 지은 「석씨원류서(序)」가 실려 있다. 하호연 서에 의하면, 이 책은 사명대사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구해왔고 1648년 최서용(崔瑞龍)·해운법사(海運法師) 등이 판각, 간행하였다고 한다. 책 위쪽에 변상도를 배치한 형식으로, 한 항목의 도설(圖說)이 1면에 실린 형태이다. 이 목판은 『석씨원류』 권4의 39~40면을 판각한 것이다.

61 금강경오가해목판
金剛經五家解木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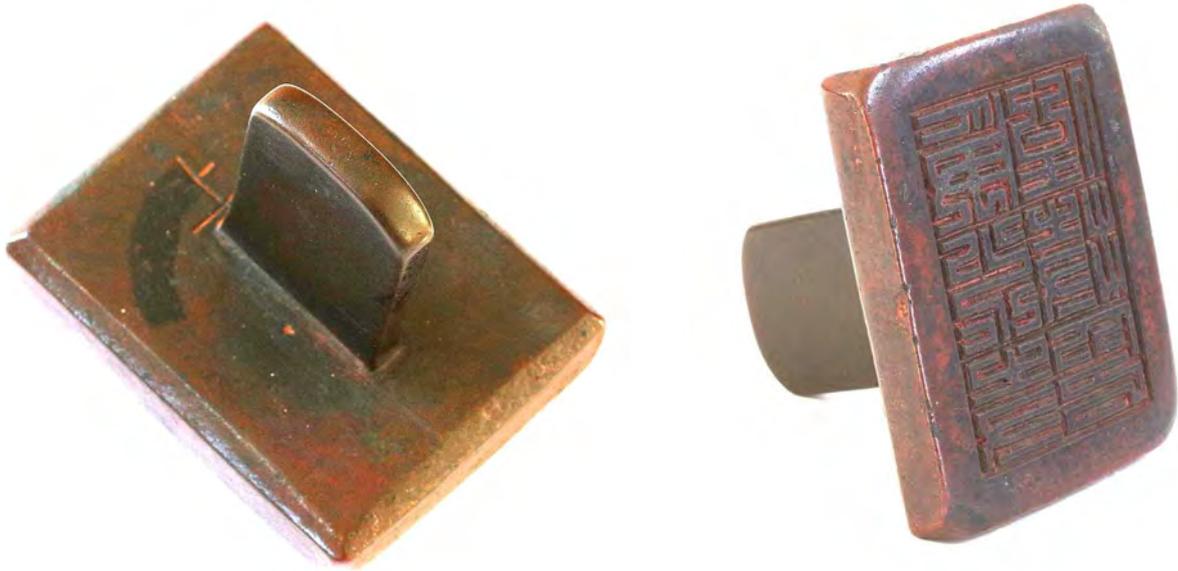
높이 26.4cm, 너비 66cm, 조선후기



『금강경오가해』 목판 중 5~6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1600년대 중반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5~6면이 판각된 것으로, 5면에는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 「서설」 중 영락을미(永樂乙未) 6월일에 쓴 함허당(涵虛堂) 서문의 말미 부분이 판각되어 있다. 6면에는 「조계육조선사」의 서문 앞 부분이 판각되어 있다.

62 정수사주지인
淨水寺住持印

높이 7cm, 너비 8×7cm, 조선후기



동(銅)으로 제작된 주지인(住持印)으로, 「정수사주지인(淨水寺住持印)」이란 인문(印文)이 새겨져 있다. 18~19세기 경, 상서원(祥瑞院)에서 제작해 반사(頒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장의紐(鈕) 앞부분에 「上」자가 음각되어 있다.

63 승사리장엄구
僧舍利莊嚴具

높이 5.5cm, 너비 10.6m, 조선후기



부도(浮屠)에 안장된 승사리(僧舍利) 장엄구(僧舍利莊嚴具) 일괄로, 금강산 일대 부도에서 수습된 것으로 구전(口傳)되는 것이다. 내함(內函)과 중함(中函), 외함(外函)으로 이루어져 있다. 퇴색된 형견에 외함이 쌓인 채, <청동제 외함> 안에는 <은제(銀製) 중함>과 <금동제(金銅製) 내함>, 그리고 <흑단으로 제작된 패>가 담겨 있다.

<은제 중함> 뚜껑에는 “영월당(永月堂)”이란 당호가 선각(線刻)되었으며, 흑단(黑檀)의 패(牌)에 기록된 “조선국유<대?>한승(朝鮮國有<大?>漢僧) / 서산대사10대손(西山大師拾代孫)”이란 내용을 통해 만화보선(萬化普善)의 스승인 영월봉율(永月奉律)의 사리함임을 추정할 수 있다.

64 승모(오방불관)
僧帽(五方佛冠)

높이 29.5cm, 너비 18cm, 조선후기



사찰에 전래된 승모(僧帽)의 한 예로, 수륙재 등의 의식을 행할 때 착용한 의식용 모자로 여겨진다. 모자 하단에 오방불(五方佛)을 그려 장식한 까닭에 「오방불관(五方佛冠)」이라 임의로 이름을 붙였다. 원대(元代) 라마풍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유물로, 한국불교에 유일하게 남아진 형태로써 그 용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자수(刺繡)의 끈사 기법, 불화 제작 기법 등 예로 볼 때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마풍의 영향 하에 고려조로부터 전해오던 유물의 예를 모본 삼아, 19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65 목어
木魚

높이 43cm, 길이 166cm, 18세기(추정)



나무를 깎아 잉어 모양으로 만들고, 속을 파 내고 그 속을 두드려 소리를 내는 불구(佛具)로, 범종, 법고, 운판 등과 함께 불전사물(佛前四物) 중 하나로 불리운다. 어고(魚鼓) 또는 어판(魚板)이라 칭하기도 하며, 본래 중국의 선원(禪院)에서 공양시간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으로, 목어가 변해 목탁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사찰의 행사 내지 예불 등 불교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목어의 형상은 용(龍) 머리에 물고기 몸을 한 용두어신(龍頭魚身)의 모습을 한 것이 일반적이다.

66 법라
法螺

길이 26cm, 조선후기



법라(法螺) 또는 나각(螺角)으로 불린다. 사찰에서 수륙재 등 대규모의 재회(齋會)시 사용한 악기 중 하나이다. 소라껍질 끝 부분을 잘라 취구(吹口)를 붙여 만들었으며, 몸체에는 손잡이를 위한 매듭을 장식하였다.

『법화경(法華經)』 및 『무량수경(無量壽經)』에 따르면 “원래 부처의 위엄 있는 설법을 비유하는 말이었지만, 뒤에는 소라(小鑼)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오분율(五分律)』과 『천수천안판 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에서는 “중생을 모을 때 울리는 것이라” 하고 있다.

67 해태형원패
獬豸形願牌

높이 33cm, 너비 24cm, 1712년(康熙50)



해태(獬豸)형의 대좌 위에 안상(眼象)형의 원패(願牌)를 조각해 끼운 것이다. 원패 상부에는 운문(雲文)과 함께 한 마리 용을 새겨 두었고, 몸체 부위에는 좌우에 파초문과 함께 모란꽃을 조각한 형태이다. 오방색을 두루 사용해 채색하였으며, 원패의 앞판과 뒷판을 따로 제작해 결합하였다. 원패 뒷판의 묵서 기록에 “康熙伍拾壹年(1712)壬辰十月日”이라 쓰여 있어 1712년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으며, “蓋員魚功德者 慧珠比丘”라 하여 불모(佛母) 혜주(慧珠)에 의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혜주(慧珠)는 1715년 경북 봉화 청량사 유리보전 건칠약사불좌상 중수도금에 수화승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68 원패
願牌

높이 47cm, 너비 37cm, 조선후기



복련(覆蓮)의 대좌 위에 안상(眼象) 형의 원패(願牌)를 조각해 끼운 것이다. 원패 상부에 운문(雲文)과 한 마리 용을 새겨두었고, 몸체 부위에도 좌우에 각각 운문과 함께 용을 조각한 형태이다. 용은 구름무늬 속에 뒤엉킨 모습이며, 채색은 오방색을 두루 사용하였다.

원래 왕실 추복(追福)을 위한 삼전패(三殿牌)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패의 중앙에 「주상삼전하성수만만세(主上三殿下聖壽萬萬歲)」란 글씨가 금니(金泥)로 쓰여 있다. 그 위에 원래의 글씨를 주사(朱砂)를 칠해 지우고, 「나무시방불(南無十方佛)」이란 묵서(墨書)를 덧쓴 상태이다.

원패 밑면에는 “同治元年(1861) 黃○四歲 重修也”란 중수 기록이 먹으로 쓰여 있다. 여기서 황마(黃馬)는 무오년(戊午年) 즉 1858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황마(黃馬) 4세(四歲) 즉 1861년에 보수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69 후령통
喉鈴筒

높이 28cm, 너비 8.5cm, 조선후기



후령통(喉鈴筒)은 불상을 조성한 후 복장의식(腹藏儀式) 때 경전, 다리니 등과 함께 복장에 납입하는 중요 납입물 중 하나이다. 금속 재질의 후령통(喉鈴筒) 안에는 『조상경(造像經)』 규범에 따라 오곡(五穀), 오약(五藥) 등 70여종의 내용물이 담겨진다. 각각 내용물은 다섯 종류로 나뉜 채 오방색의 종이에 각각 싸여지며, 오색실로 묶여진다. 그 내용물을 후령통 안에 안치한 채 뚜껑을 닫고, 오색실은 후령통 뚜껑에 부착된 대롱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와, 후령통 외부에 오방을 상징하는 다섯 종류의 금속편을 배치한 후 그것을 묶는다. 각 금속편이 위치한 자리에는 오방을 표시하는 종자(種字)가 붉은 주사로 쓰여진다. 이후 후령통을 누런 천인 황초폭자(黃稍幅子)로 감싼 채, 후령통 안에서 나온 오색실로 황초폭자 윗부분을 묶은 후, 하얀색 종이로 감싸 붙이고 그 위에 봉(封)이란 글자를 써놓았다. 또한 황초폭자 4면에도 각 방위와 함께 범자(梵字)를 써 두었다. 후령통은 인간 신체의 오장육부를 상징한 채, 이를 불복(佛腹)에 넣음으로써 불상에 생명력을 불어 넣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다.

70 복장낭
腹藏囊

높이 20.7cm, 너비 17.3cm, 조선후기, 1759년



불상 복장(腹藏)과는 달리, 탕화(幀畵)의 경우 복장낭(腹藏囊)에 복장물을 담아 탕화 위에 걸어두게 된다. 불상 복장의 경우 금속 내지 목재로 만든 원통형의 후령통을 납입하는 것에 비해, 탕화 복장시에는 종이로 만든 사각형 함을 사용하는 차이가 있다. 후령통 외에 납입하는 복장물의 경우도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전적류 대신 다라니와 조성발원문 정도만이 납입된다.

복장낭 안에서 1759년(乾隆二十) 다라니가 수습되어, 복장낭의 조성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71 불자
拂子

길이 108~80cm, 조선후기



불자(拂子) 또는 불진(拂塵)이라 칭하며, ‘티끌을 털어낸다’는 뜻에서 ‘번뇌를 떨쳐버림을 상징’하는 불교 법구(法具) 중 하나이다. 주미(麈尾)라 칭하기도 하여, 불자의 <털이개> 부분이 사슴 내지 고라니의 꼬리털로 만든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인도 파트나박물관에 소장된 마우리아왕조대의 「석조 약사여래상」에 불자(拂子)가 묘사되어, 애초 인도에서 기원한 불구(佛具)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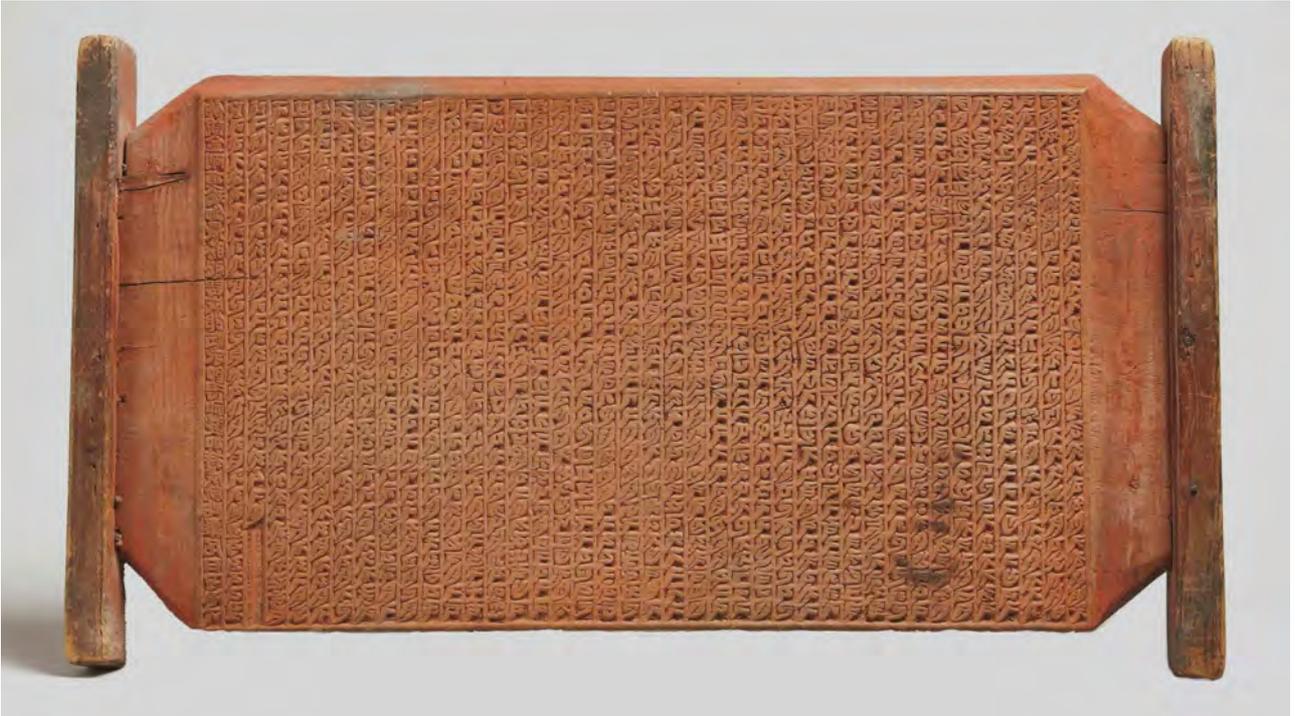
석굴암의 범천상, 선산 도리사의 금동육각사리함(金銅六角舍利函)의 범천상에 불자(拂子)가 들려 있어 삼국 내지 통일신라 때부터 불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종(禪宗)의 유행 속에 불자는 전법(傳法)의 상징물로 사용되어 나옹(懶翁)이 지공(指空)으로부터 불자를 전수했으며, 나옹은 무학(無學)에게 불자를 전수한 예 등은 이를 입증한다. 조사(祖師) 영정에 중요 지물(持物)로 그려지며, 주지(住持)가 설법할 때 위엄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고려대에 조성된 묘향산 안심사(安心寺) 석종지비(石鐘之碑) 기록에 “마노불자(瑪瑙拂子) 1병(柄)”란 표현이 등장하여, 불자를 헤아리는 단위로 병(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자는 병부(柄部, 손잡이)와 주미(麈尾, 털이) 부분으로 나뉜다. 위 불자 중, 하나는 손잡이 부분이 자색 마노(瑪瑙)로, 2개는 나무로 제작되었고, 하나는 등나무 줄기로 제작되었다. 마노불자 손잡이의 경우 6각의 면에 당초문과 연화문 등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병부와 주미(털이) 사이에는 정교한 매듭의 이음새를 만들어, 주미를 연결시키고 있다. 주미는 말총과 같은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10개 내외의 가는 털을 송진으로 꼬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흔적이 보인다.

72 수구즉득다라니목판
隨求即得陀羅尼木板

높이 36.8cm, 너비 69cm, 근대, 1909년



「불설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佛說金剛頂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 목판으로, 『불설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경』에 있는 다라니를 새겨둔 것이다. 위 다라니는 간략히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即得陀羅尼)」라 불리기도 한다. 경판 전체 크기는 가로 69cm, 세로 36.8cm로, 판면(板面)에 계선(界線)을 두고 40행 30자로 전면과 후면에 걸쳐 다라니를 새겨 두었다. 후면 여백에는 「당생정토인(當生淨土印)」 등 9종의 부적도판을 새겨 두기도 하였다.

후면 마지막 줄에는 “융희3년기유(隆熙三年己酉, 1909) 윤이월일(閏二月日) 삼각산(三角山) □암사(□岩寺)”란 간기(刊記)가 적혀 있어, 1909년에 판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모가 심한 편은 아니나, 간기 부분에 한 글자가 훼손되어 정확한 판각처를 알기 어렵다. 삼각산 서남쪽에 서암사(西岩寺)와 서북쪽에 덕암사(德岩寺)가 있었던 바, 위 두 사찰 중 한곳에서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73 승사리장엄구
僧舍利莊嚴具

높이 14.8cm, 너비 15.6cm, 근대, 1919년



곱돌로 제작된 사리장엄구 외함(外函) 안에, 다시 놋그릇 형태의 재질로 만든 내함(內函)이 담겨 있다. 내함에는 함석 재질로 동함파 은함이, 그리고 청동으로 금함을 만들었으며, 동, 은, 금함 외곽에 각각 불(佛), 법(法), 승(僧)을 묵서하였다. 그리고 금함(金函) 안에는 사리 2과와 함께 수정 사리병과 호패 형태의 패(牌)가 담긴 상태이다.

패(牌) 앞면에는 “枕虛堂 圓”이, 뒷면에는 “照 嘉慶山 己未年”이라 칼로 거칠게 새겨져 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위 사리 장엄구의 주인은 침허당(枕虛堂) 원조(圓照)로, 가경산(嘉慶山)에 부도를 세웠으며, 그 해는 기미년(己未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리장엄구 외함에는 승상(僧像) 도상과 함께 다음 내용이 음각되어 있다. “住持 定心岳泰 / 默 / 監務 靑庵奉典 / 監事 玩海載元 / 法務 鏡河暢晏.” 이 가운데 감사로 기록된 완해재원(玩海載元)은 불모(佛母)로 활약한 팍운경천(廓雲敬天)의 법손이며, 법무로 기록된 경하창안(鏡河暢晏)은 동선정의(東宣淨義)의 법손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淸虛休靜 - 鞭羊彥機 - 楓潭義謙 - 月潭雪霽 - 喚惺志安 - 涵月海源의 계보로, 함월해원(涵月海源)의 8대손에 해당한다.

이 계보에 비추어 연대를 파악해 볼 때, 침허당 사리장엄구에 담겨진 패의 기록 중 기미년(己未年)은 1919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74 흥가사
紅袈裟

높이 88cm, 너비 149.5cm, 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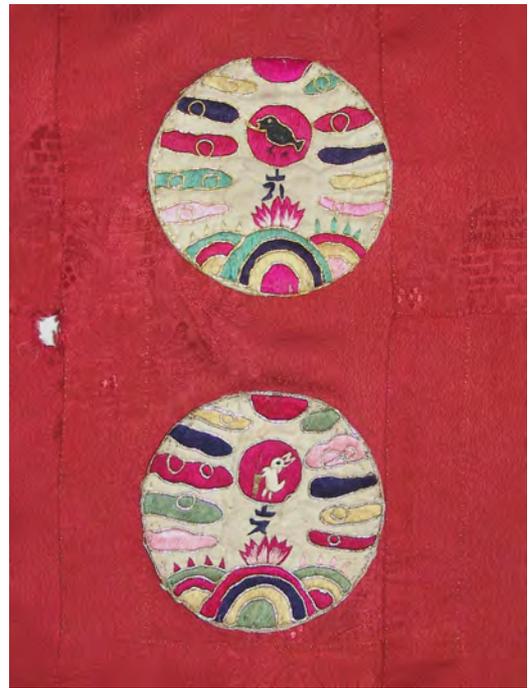
일반 가사(袈裟)의 경우, 가사의 등 부분에 일월(日月)의 상징인 까마귀와 토끼를 원형 장식 안에 부착해 「일월성수천(日月星宿天)」을 표현하며, 가사의 4변(四邊) 모퉁이에 천(天) 내지 왕(王)이란 글자를 넣어 「사천왕천(四天王天)」을 나타냄이 통례이다. 그러나 이 가사의 경우 일월(日月) 장식을 대신해 「십바라밀정진도(十波羅蜜精進圖)」를 가사 좌측 6단의 상단에 13 × 13cm 크기로 부착하였다.

「십바라밀정진도」는 주황색 바탕에 금실로 수(繡)를 놓아 부착하였으며, 가사 네 귀퉁이 상단에는 천(天), 하단에는 왕(王)자(字)가 은실로 수놓아 있다.

「십바라밀정진도」가 부착된 가사는 의식 집전시 「어장(魚丈)」 스님이 걸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성도재일(成道齋日) 때 「십바라밀정진도」를 도는 의식이 있는데, 이때 입던 의식용 가사 이거나, 가사를 수(垂)했던 스님이 10바라밀(十波羅蜜)을 서원해 특별히 조성한 가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75 흥가사
紅袞裳

높이 81.5cm, 너비 152cm, 근대



가사 좌측 6단의 상단에 지름 9cm 크기의 일월상(日月像)이 부착되어 있다. 「일월상」은 흰색 바탕 위에 금실 내지 은실로 구획을 만든 채, 그 안에 오방색을 사용해 태양을 상징하는 삼족오(三足烏)와 달을 상징하는 토끼, 그리고 각 하단에는 수미산과 구름, 연꽃, 범어 옴, 람 자 등을 자수(刺繡)로 수(繡) 놓았으며, 연꽃 위에는 각각 범어 「옴」자를 수놓았다. 가사 네 귀퉁이는 은실로 구획을 둔 채 상단에는 천(天), 하단에는 왕(王) 자(字)를 파란색 실로 수놓았다. 조선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통용되었던 승려 가사의 일반적 형식이다.